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성취한다.



‘한수’가 ‘한 술’ 더 뜨다
‘한수’ SECRET KEY

2021학년도 한수 파이널 4회 모의고사
주요 문항 분석지

#Chapter 1. 오답률 Best 5, “선택지 판단” 집중 분석

[참고] 이 문항들은 오답률이 높은 문항이자, 동시에 학생들이 공부함에 있어 의미가 있는 문항들을 선정한 것입니다. 사실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것은 낯선 문제를 보며 문제 풀이의 감을 유지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모의고사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을 얻어간다는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도 문항이라 함은 학생 개별마다의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틀린 것과 대응하기보다는 이 ‘모의고사에서 이런 점을 얻어가야 하는구나.’ 정도의 생각으로 이 분석지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오답률 예측		해당 문항	
오답률 5위	35%	31번	(독서 : 사회) -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의 상황 분석
오답률 4위	38%	35번	(문학 : 고전시가) - <보기>를 기반으로 한 시구 의미 파악
오답률 3위	42%	32번	(독서 : 사회) - 지문 내용과 <보기> 세부 일치
오답률 2위	50%	40번	(독서 : 기술) -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의 상황 분석
오답률 1위	67%	42번	(독서 : 기술) -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의 그래프 분석

[문학] 현대시 : 오장환, ‘성탄제’ / 고전시가 : 최현, ‘명월음’

[문법] 13번, 14번, 15번

[독서] 기술 지문 : 디스플레이의 색채 구현 기술 (해설 + 분석 자료)

#Chapter 2. ‘영역 별 주요 지문’ 집중 분석 참고

[오답률 5위(35%) 예측] : 독서-사회 31번 문항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의 상황 분석]	
[Killer-Point]	<p>31. <보기>의 사례들은 매체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 보기 ></p> <p>(가) 언론 매체들의 전염병에 대한 보도 프레임을 조사하고 각 언론 매체들의 구독자 반응을 분석한 결과, 예후 프레임보다 진단 프레임으로 보도한 비율이 높은 언론 매체의 구독자일수록 전염병 확산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정부의 대처 방안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p> <p>(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진단 프레임과 예후 프레임에 따라 쟁점으로 부각된 사회 문제를 달리 해석한다. 진단 프레임에 따를 때는 사회 문제의 원인이나 책임 소재를 밝히려는 데 집중하고 예후 프레임을 따를 때는 사회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는 데 집중한다.</p> </div> <p>① (가)는 매체 프레임을 독립 변수로 상정한 연구이겠군. ② (가)를 보니, 매체 프레임에 따라 문제 상황에 대한 대중의 인지 양상이 달라짐을 알 수 있군. ③ (나)는 수용자 프레임을 독립 변수로 상정하여 수용자 프레임에 따라 문제 상황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한 연구이겠군. ④ (가)와 (나)의 연구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면, 전염병 발생에 대해 예후 프레임으로 보도한 비율이 높은 언론 매체의 구독자일수록 전염병 발생의 원인을 밝히려는 성향이 강하겠군. ⑤ (가)와 (나) 모두 독립 변수로 상정한 프레임의 형성 요인에 대한 설명이 없어, 각 연구만으로는 언론 매체와 수용자의 상호 작용을 포괄적·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겠군.</p> <p style="text-align: right;">[정답 : ④]</p> <p>지문 내용을 <보기>에 어떻게 적용해야할지 고민이 될 수 있다. '지문'과 <보기>의 내용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만 정확하게 판단했다면 정답 선지를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었을 것이고, 불필요한 내용들까지 끌고 들어와서 생각했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더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다. 먼저 (가)의 연구 결과를 통해, 매체가 어떤 프레임을 취하느냐에 따라 수용자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에서 수용자가 "진단 프레임"에 따를 때는 사회 문제의 원인이나 책임 소재를 밝히려는 데 집중'한다고 하였다.</p> <p>이에 따라 매체와 수용자가 진단 프레임을 따를 때 수용자들은 전염병 발생의 원인을 밝히려는 성향이 강할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p> <p>물론 주어진 <보기>의 정보만 가지고 이러한 추론이 확실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도 매체가 예후 프레임을 취할 때 수용자가 어떤 프레임을 취할 것인지 여부도 (가)와 (나)의 내용만 가지고는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4번 선지의 진술 역시 근거가 없는 진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4번 선지와 같이 단정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p>
[유사 평가원 기출] - 2007학년도 수능	
	<p>(가) 제2차 세계 대전 중, 태평양의 한 전투에서 일본군은 미군 흑인 병사들에게 자신들은 유색인과 전쟁할 의도가 없으니 투항하라고 선전하였다. 이 선전물을 본 백인 장교들은 그것이 흑인 병사들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급하게 부대를 철수시켰다. 사회학자인 데이비슨은 이 사례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대중</p>

매체가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제3자 효과(third-person effect)' 이론을 발표하였다.

- (나) 이 이론의 핵심은 사람들이 대중 매체의 영향력을 차별적으로 인식한다는 데에 있다. 곧 사람들은 수용자의 의견과 행동에 미치는 대중 매체의 영향력이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더 크게 나타나리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선거 때 어떤 후보에게 탈세 의혹이 있다는 신문 보도를 보았다고 하자. 그때 사람들은 후보를 선택하는 데에 자신보다 다른 독자들이 더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여긴다. 이러한 현상을 데이비슨은 '제3자 효과'라고 하였다.
- (다) 제3자 효과는 대중 매체가 전달하는 내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예컨대 대중 매체가 건강 캠페인과 같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내용을 전달할 때보다 폭력물이나 음란물처럼 유해한 내용을 전달할 때, 사람들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더욱 크게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수용자의 구체적인 행동에도 영향을 미쳐, 제3자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사람일수록 내용물의 심의, 검열, 규제와 같은 법적·제도적 조치에 찬성하는 성향을 보인다.
- (라) 전통적으로 대중 매체 연구는 매체에 노출된 수용자의 반응, 즉 그들이 보이는 태도나 행위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이에 비해 제3자 효과 이론은 매체의 영향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차별적 인식 및 그에 따른 행동 성향을 조사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유해한 내용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가 실제보다 과장되었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검열과 규제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사고가 어떠한 것인지도 짐작하게 해 준다.
- (마) 제3자 효과 이론은 사람들이 다수의 의견처럼 보이는 것에 영향받을 수 있다는 이론과 연결되면서, 여론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데에도 이용되었다. 이 설명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은 대중 매체의 전달 내용에 쉽게 영향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영향받을 것을 고려하여 자신의 태도와 행위를 결정한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서 소외되어 고립되는 것을 염려한 나머지, 자신의 의견을 포기하고 다수의 의견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다.

23. ㉠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진술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사회적으로 유해한 내용의 영향력이 실제보다 과장되어 있다.
- ② 대중 매체의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
- ③ 유해한 내용일수록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 ④ 검열과 규제가 사람들을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 ⑤ 대중 매체에 쉽게 영향받는 사람들이 있다.

[정답 : ①]

[오답률 4위(38%) 예측] : 문학-고전시가 35번 문항

[<보기>를 기반으로 한 시구 의미 파악]

35.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기 > —

최현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하고자 고향인 선산의 향민들을 규합하여 의병을 일으켰다. 임진왜란 당시에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명월음」에서도 이러한 최현의 우국충정(憂國表情)을 엿볼 수 있다. 작가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선정(善政)이 베풀어지던 전란 전의 상황과 전란이 일어나 위태로워진 나라를 염려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 주는 한편,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자신의 무능함을 한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Killer-Point]

- ① '불근 둘'은 임금을, '심술긋은 뜯구름'이나 '썰구름'은 왜적을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서산에 히 숨고 긴 밤이 침침'하다는 것은,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당시의 암울한 시대상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상하 사방에 갈 길흙 모를노다'는, 전란으로 인해 어찌할 바를 몰라 혼란스러워하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④ '이 몸은 진토이니 / 쓸쓸한 이내 뜻이 헤느니 허사로다'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하는 자신의 보잘것없는 처지를 한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긋득 시름'이 많은 가운데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것은, 임금과 나라를 걱정하는 화자의 우국충정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겠군.

[정답 : ②]

연계 지문이기 때문에, 현대어 풀이가 어려워서 틀렸다면 EBS 분석지를 현대어 풀이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 이정도 선지는 <보기>의 설명 없이도 지문 내용과의 사실 일치만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도 이왕 <보기>를 주었으니, 이를 기반으로 판단해보자.)

먼저 이 시구가 부정적 상황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중략> 이전 화자 상황이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중략> 이후의 '심술긋은~갈 길을 모를노다'와 같은 내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중략> 이전에는 그런 내용도 나타나지 않을뿐더러 <보기>를 참고할 때 <중략> 이전은 선정이 베풀어지던 전란 전의 상황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산에 히 숨고 긴 밤이 침침'하다는 것은 그냥 '달이 뜨기 전의 상황'을 드러내는 것으로 봐야지, 당시의 암울한 시대상, 즉 부정적 상황과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혹시 '긴 밤이 침침'하다는 표현만 가지고 2번 선지를 맞다고 판단한 학생이 있다면, '맥락' 안에서 사실 일치를 판단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겠다.

[유사한 평가원 기출] - 2020학년도 9월 모의평가

홍진(紅塵)에 못친 분네 이 내 생애 엇더흔고
 넷사름 풍류를 미출가 못미출가
 천지간 남자 몸이 날만 혼 이 하건마는
 산림에 못쳐 이서 지락(至樂)을 므를것가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얹피 두고
 송죽 울울리^{*}에 풍월주인 되어서라
 엇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도화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뛰여 잇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細雨) 중에 프르도다
 칼로 몰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마다 험스럽다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뭇내 계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물아일체(物我一體)어니 흥이이 다룰소냐
 시비에 거러 보고 정자애 안자 보니
 소요음영^{*}하야 산일(山日)이 적적헌디
 한중진미(閒中眞味)를 알 니 업시 호재로다
 이바 니웃드라 산수 구경 가자스라
 답청(踏青)으란 오늘 하고 욱기(浴沂)란 내일 하새
 아춤에 채산(採山)하고 나조히 조수(釣水)하새
 꺾 괴여 닉은 술을 갈건(葛巾)으로 밧타 노코
 곳나모 가지 것거 수 노코 먹으리라
 화풍(和風)이 건듯 부러 녹수(綠水)를 건너오니
 청향(清香)은 잔에 지고 낙홍(落紅)은 옷새 진다
 준중(樽中)이 뷔엇거든 날드려 알외여라
 소동 아히드려 주가에 술을 물어
 얼운은 막대 잡고 아히는 술을 메고
 미음완보(微吟緩步)하야 시냇⁷의 호자 안자
 명사(明沙) 조흔 물에 잔 시어 부어 들고
 청류(清流)를굽어보니 써오느니 도화(桃花) | 로다
 무릉이 갓갑도다 저 미이 권 거인고

- 정극인, 「상춘곡」 -

*울울리 : 뽀뽀하게 우거진 속.

*소요음영 : 자유로이 천천히 걸으며 시를 읊조림.

18. (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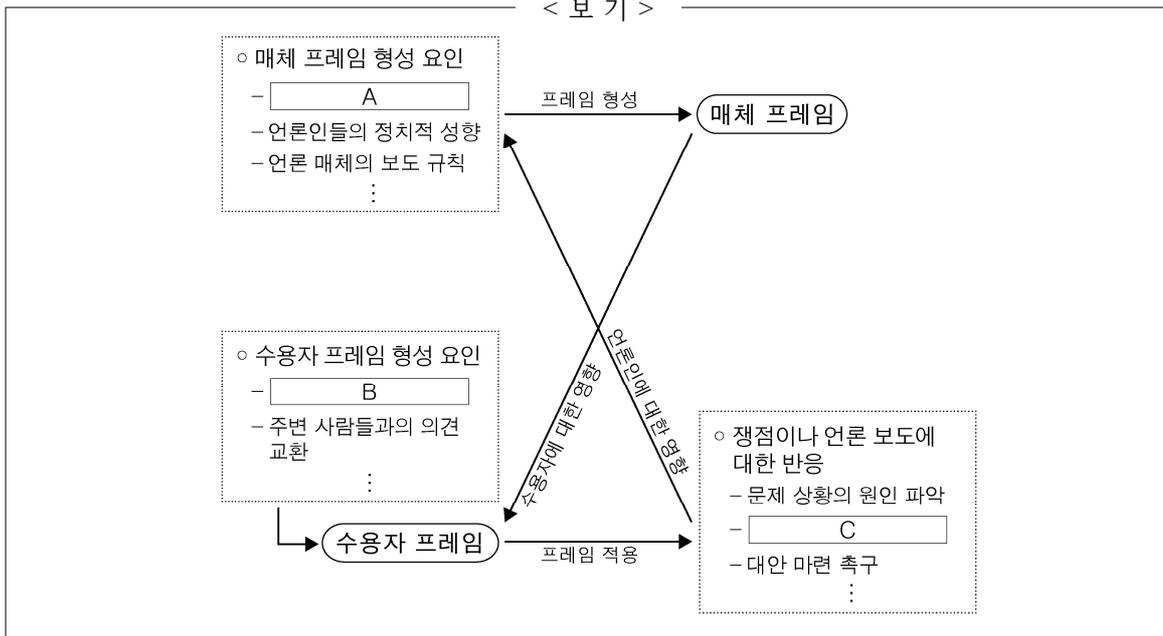
- ① 자신의 삶을 옛사람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풍월주인이라 여기는 데에서 화자의 자부심이 드러나는군.
- ② 붓으로 그린 듯한 숲 속에서 봄의 흥을 노래하는 새를 바라보는 데에서 새에 대한 화자의 부러움이 드러나는군.
- ③ 오늘과 내일, 아침과 저녁에 할 일들을 나열하는 데에서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이 드러나는군.
- ④ 맑은 향이 담긴 술잔과 옷에 떨어지는 꽃잎을 주목하는 데에서 자연과 화자의 일체감이 드러나는군.
- ⑤ 시냇물에 떠내려 오는 도화를 보며 이상향을 연상하는 데에서 화자의 고조되는 감흥이 드러나는군.

[정답 : ②]

[오답률 3위(약 42%) 예측] : 독서-사회 32번 문항

[지문 내용과 <보기> 세부 일치]

32. <보기>는 학자 갑이 ㉠을 수행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언론 매체와 수용자의 상호 작용을 도식화한 것이다. 뒷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A~C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Killer-Point]

- | | <u>A</u> | <u>B</u> | <u>C</u> |
|---|-----------|-----------|-----------|
| ① | 이익 단체의 압력 | 개인의 지적 배경 | 문제 상황 인지 |
| ② | 사회적 규범 | 이익 단체의 압력 | 책임 소재 규명 |
| ③ | 책임 소재 규명 | 개인의 지적 배경 | 사회적 규범 |
| ④ | 사회적 규범 | 문제 상황 인지 | 개인의 지적 배경 |
| ⑤ | 이익 단체의 압력 | 책임 소재 규명 | 문제 상황 인지 |

[정답 : ①]

그림이 복잡해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잘 따져 보면 추론보다는 세부 일치에 더 가까운 문제이다. 화살표는 참고용으로만 보는 것이고 실제 판단 과정은 지문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따져야 한다.

A는 '매체 프레임의 형성 요인'에 무엇이 있는지 1문단에서 찾아서 판단해야 하고, B는 수용자 프레임의 형성 요인에 무엇이 있는지 3문단에서 찾아서 판단해야 한다. C는 5문단의 '수용자 프레임에 따라 쟁점이나 언론 보도에 대한 인식, 태도, 반응 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주로 분석한다'는 내용에서 근거를 찾으면 된다. 구체적으로 판단해보면 아래와 같다.

1문단에서 언론 매체는 언론사의 보도 규칙이나 / 이익 단체의 압력 / 등으로 인해 모든 사건을 동일한 비중으로 보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이 중 '언론사의 보도 규칙'은 A 밑에 미리 써져 있으니, A에는 '이익 단체의 압력'이 들어가면 된다. 여기서 답은 1번과 5번으로 좁혀진다.

다음으로 3문단에서 수용자 역시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개인의 지식이나 경험,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이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따라서 B에는 '개인의 지적 배경'이 들어갈 수 있다. (여기서 답이 1번으로 정해진다.)

마지막으로 5문단에서 수용자 프레임에 따라 쟁점이나 언론 보도에 대한 인식, 태도, 반응 등이 달라진다고 하였는데, '쟁점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은 '문제 상황'이 무엇인지 '인지'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과 같으므로, C에는 '문제 상황 인지'가 들어갈 수 있다. (물론 2번 선지의 책임 소재 규명'도 가능하다.)

[유사한 평가원 기출] - 2016학년도 9월 모의평가 B

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함에 따라 인간의 삶은 더욱 여유롭고 의미 있는 것으로 될 것인가, 아니면 더욱 바쁘고 의미 없는 것으로 전락할 것인가? '사색적 삶'과 '활동적 삶'을 대비하여 사회 변화를 이해하는 방식은 이런 물음의 답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최초로 인간의 삶을 사색적 삶과 활동적 삶으로 구분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그는 진리, 즐거움, 고귀함을 추구하는 사색적 삶의 영역이 생계를 위한 활동적 삶의 영역보다 상위에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인식은 근대 이전의 오랜 역사 속에서 사회 질서의 기본 원리로 자리 잡아 왔다.

근대에 접어들어 과학 혁명과 청교도 윤리의 등장으로 활동적 삶과 사색적 삶에 대한 인식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16, 17세기 과학 혁명으로 실험 정신과 경험적 지식이 중시되면서 사색적 삶의 영역에 속한 과학적 탐구와 활동적 삶의 영역에 속한 기술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다. 또한 직업을 신의 소명으로 이해하고, 근면과 검약에 의한 개인의 성공을 구원의 징표로 본 청교도 윤리는 생산 활동과 부의 축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써 활동적 삶과 사색적 삶이 대등한 위상을 갖게 된 것이다.

18, 19세기 산업 혁명을 계기로 활동적 삶은 사색적 삶보다 중요성이 더 커지게 되었다. 생산 기술에 과학적 지식이 응용되고 기계의 사용이 본격화되면서 기계의 속도에 기초하여 노동 규율이 확립되었고, 인간의 삶은 시간적 규칙성을 따르도록 재조직되었다. 나아가 시간이 관리의 대상으로 부각되면서 시간-동작 연구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작업 동선(動線)을 모색했던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은 20세기 초부터 생산 활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중요한 원리로 자리 잡았다. 이로써 두뇌에 의한 노동과 근육에 의한 노동이 분리되어 인간의 육체노동이 기계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또한 과학을 기술 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이 요구되어 공학, 경영학 등의 실용 학문과 산업체 연구소들이 출현하였다. 이는 전통적으로 사색적 삶의 영역에 속했던 진리 탐구마저 활동적 삶의 영역에 속하는 생산 활동의 논리에 포섭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이처럼 산업 혁명 이후 기계 문명이 발달하고 그에 힘입어 자본주의 시장 메커니즘이 사회를 전면적으로 지배하게 됨에 따라 근면과 속도가 강조되었다. 활동적 삶이 지나치게 강조된 데 대한 반작용으로, '의미 없는 부지런함'이 만연해진 세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타나 성찰에 의한 사색적 삶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하였다.

이제 20세기 말 정보화와 세계화를 계기로 시간적·공간적 거리가 압축되어 세계가 동시적 경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인식되면서 인간의 삶은 이전과 크게 달라졌다. 기술의 비약적 발달로 의식주 등 생활의 기본 욕구는 충족되었지만, 현대인들은 더욱 다양해진 욕구와 성취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스스로를 소진하고 있다. 경쟁이 세계로 확대됨에 따라 사람들이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동시에 자신의 능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스스로를 끝없이 몰아세울 수밖에 없는 내면화된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삶을 여유롭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사색적 삶은 설 자리를 잃고 활동적인 삶이 폭주하게 된 것이다.

23. <보기>를 바탕으로 밑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20세기 후반 이후의 '후근대 사회'를 '피로 사회'로 규정하는 견해가 있다. 이에 따르면 근대 사회가 '규율 사회'였음에 비해 후근대 사회는 '성과 사회'이다. 규율 사회가 외적 강제에 따라 인간이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사회라면, 성과 사회는 성공을 향한 내적 유혹에 따라 인간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사회이다.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라 결핍이 해소되고 규율 사회의 강제가 약화된다고 해서 인간이 삶의 온전한 주체가 되는 사회가 도래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 생산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본적인 요구가 규율 사회에서 외적 강제에 의한 타자 착취를 통해 관철되었다면, 성과 사회에서 그 요구는 내적 유혹에 의한 자기 착취를 통해 관철된다. 그 결과 피로는 현대인의 만성 질환이 되었다는 것이다.

- ① 근대 사회에서 기계의 속도에 기초하여 확립된 노동 규율은 타자 착취를 위한 규율 사회의 외적 강제로 볼 수 있겠군.
- ② 자신의 능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현대인의 강박증은 피로 사회에서 일어나는 자기 착취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정보화, 세계화에 따라 세계가 동시적 경험이 가능한 공간이 되면서 성과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본적인 요구가 달라지는군.
- ④ 기술의 발달에 따라 삶이 더 여유롭고 의미 있는 것이 될 것이라는 견해는 현대 사회를 피로 사회로 포착하는 견해에 반하는 것이군.
- ⑤ 다양해진 욕구와 성취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자신을 소진하는 현대인의 행동은 성공적인 인간이 되기 위한 내적 유혹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정답 : ③]

[오답률 2위(약 50%) 예측] : 독서-기술 40번 문항 (구체적인 것은 지문 분석 때!)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의 상황 분석]

40.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아래 표는 하위 화소의 색심도가 3비트인 OLED 디스플레이의 화소 I과 II에 대한 정보이다. 계조의 단계 간 전류량의 차이는 모두 10으로, 가장 낮은 단계의 전류량은 0으로 설정되었다.

	화소 I			화소 II		
하위 화소	R	G	B	R	G	B
전류량	0	0	50	60	70	0

(단, 감마 보정은 하지 않은 상태로, 표에 기입된 R, G, B는 각각 해당 색상의 빛을 발하는 하위 화소를 가리킨다.)

[Killer-Point]

- ① 화소 I과 II가 각각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의 수는 29개이겠군.
- ② 화소 I은 파란색 계열, 화소 II는 노란색 계열의 빛을 내겠군.
- ③ 화소 II의 하위 화소 B에도 적정량의 전류를 공급하면 하얀색 계열의 빛을 내겠군.
- ④ 화소 I의 B에 공급되는 전류량을 30으로 줄이면 파장은 그대로인 채 색상만 더 어두워진 빛이 방출되겠군.
- ⑤ 화소 I의 하위 화소 B에서 생성된 여기자는 화소 II의 하위 화소 G에서 생성된 여기자보다 낮은 에너지를 가지겠군.

[정답 : ⑤]

1~4번 선지를 지우는 게 어려운 것이지, 정답 선지 자체는 쉽게 판단이 가능하다. 이 문제를 틀린 학생들은 대부분 5번 선지를 보기 전에 답을 골랐을 가능성이 높다. 5번 선지를 보고 틀렸든, 보지 않고 1~4번 사이에서 답을 골라서 틀렸든, 정답 선지를 고를 때는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만약 틀렸다면, 선지 판단을 조금 더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한다. 3문단을 보면 여기자는 들뜬상태와 바닥상태의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빛의 형태로 발하며, 들뜬상태와 바닥상태의 에너지 차이가 클수록 파장이 짧은 빛을 방출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파장은 $R > G > B$ 순서로 짧아진다. 즉 G보다 B가 파장이 짧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화소 I의 하위 화소 B에서 생성된 여기자가 화소 II의 하위 화소 G에서 생성된 여기자보다 큰 에너지를 가질 것임을 알 수 있다.

[유사한 사례] - 2006년도 3월 학평

(가) 레이저(LASER)는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로, '방사선 복사를 유도하여 빛을 증폭한다'는 뜻이다. 레이저는 원래 빛이 증폭되는 물리적 현상을 뜻하는 것이었으나, 지금은 레이저광선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레이저의 개념은 1951년 찰스 타운스가 아인슈타인의 방사파 생성 이론을 기초로 창안하였으며, 1960년 테오도르 메이먼은 최초로 레이저 장치를 구현했다.

(나) 물질의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들이 각각의 에너지 준위를 따라 배열되어 있는데, 에너지의 준위는 에너지의 계단이나 사다리에 비유될 수 있다. 에너지 준위가 높아지면 전자가 보유하는 에너지도 높아지며, 보유 에너지가 낮은 전자부터 원자핵에 가까운 에너지 준위를 채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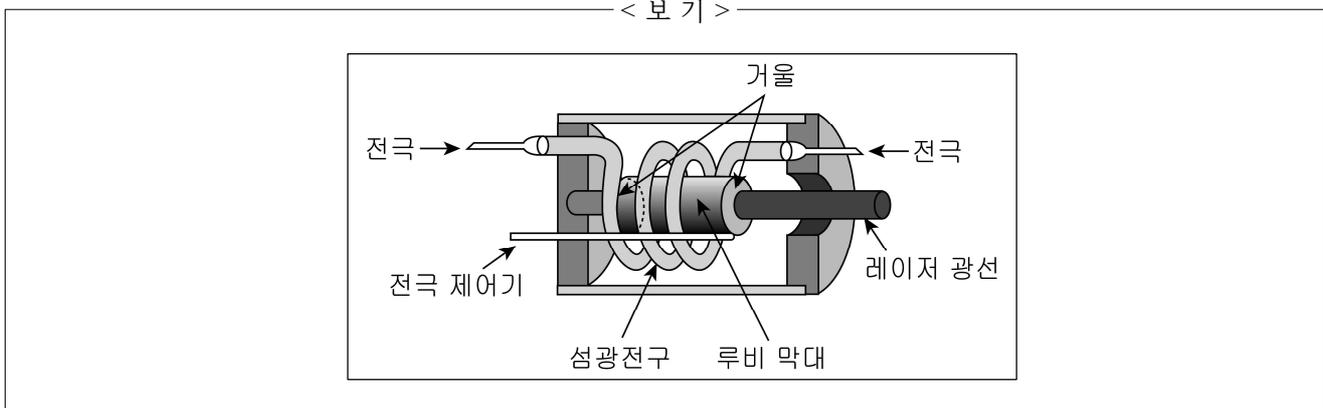
나간다. 전자가 외부의 에너지를 흡수하면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여 바깥쪽 에너지 준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전자가 자신의 자리에 있을 때를 '바닥 상태', 높은 에너지 준위로 올라갔을 때를 '들뜬 상태'라고 한다. 들뜬 상태의 전자들은 바닥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경향이 있고,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갈 때는 빛 등의 에너지를 방출하게 된다.

(다) 최초의 레이저 장치를 만든 메이먼은 루비의 전자를 이용하였다. 루비는 그 특성상 전자가 들뜬 상태가 될 때 그 상태에 머무는 시간이 길기 때문이었다. 메이먼은 빛을 쬐어 루비의 특정 전자들을 들뜨게 함으로써 바닥 상태의 전자수보다도 들뜬 상태의 전자수를 많게 만들었다. 이런 상태를 \odot 조성해 주면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들뜬 전자가 자연스럽게 원래의 준위로 되돌아가면서 빛을 내고, 다른 들뜬 전자에서도 같은 파장을 가진 빛이 차례차례 발생한다. 그러는 동안 들뜬 물질의 양쪽에 설치해 둔 거울 2개 사이에서는 생성된 빛이 그대로 반사되면서 몇 번씩 왕복하며 다른 들뜬 전자들이 빛을 방출하도록 유도한다. 그래서 빛은 자꾸만 증폭(增幅)된다. 이 때 2개의 거울 중 1개의 거울은 일부의 빛을 투과할 수 있게 하여 거울 사이에서 증폭된 빛의 일부가 외부에 레이저광선으로 발진된다.

(라) 메이먼의 루비 레이저가 개발된 이후 기체, 액체, 고체, 반도체 등의 매질로 많은 종류의 레이저가 만들어졌으며 그들의 특성은 다양하다. 하지만 모든 레이저광선은 기본적으로 단일한 파장과 방향성을 가진 광자로 이루어져 있고, 거의 완벽하게 직진하므로 다른 방향으로 퍼지지 않는다. 또한 렌즈를 통해 극히 작은 점에 빛을 수렴시킬 수 있다. 이는 다양한 광자로 이루어져 있고, 다른 방향으로 쉽게 퍼지며, 렌즈를 통해서 쉽게 수렴이 되지 않는 보통의 빛과 크게 다른 점이다.

(마) 이러한 특성들을 바탕으로 레이저광선은 보통의 빛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해 내고 있다. 공중에 원하는 글자나 멋진 그림을 펼쳐 보이고, CD의 음악을 재생한다. 제조업에서는 레이저광선으로 다양한 물체를 정밀하게 자르거나 태우고, 의사는 환자의 수술에 레이저광선을 활용한다. 단위 시간에 엄청난 양의 통신 정보를 실어 나를 수 있는 통신 매체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 레이저는 현대의 거의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최첨단 기술로 자리 잡았다.

58. 다음은 최초의 레이저 장치 모형이다. 윗글을 통해 볼 때, '섬광전구'의 기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전자의 움직임을 둔화시킨다.
- ② 전자를 원자핵에 가깝게 이동시킨다.
- ③ 전자가 들뜬 상태에 머무는 시간을 늘려준다.
- ④ 전자가 원래보다 높은 에너지 준위로 올라가게 한다.
- ⑤ 전자 하나당 발생하는 빛의 양과 강도를 증폭시켜 준다.

[정답 :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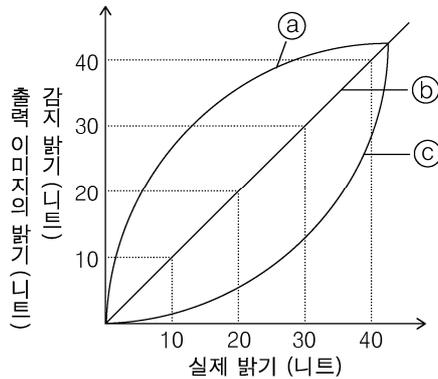
[오답률 1위(약 67%) 예측] : 독서-기술 42번 문항 (구체적인 것은 지문 분석 때!)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의 그래프 분석]

42. 윗글을 참고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감마 보정이 필요한 것은 우리 눈이 색상이 어두울 때도 실제의 밝기 차이를 그대로 감지하는 카메라와 다르기 때문이다. 아래는 실제 밝기와 감지 밝기 혹은 실제 밝기와 출력 이미지의 밝기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단, 감마 보정 이후에는 우리 눈이 출력 이미지를 보고 실제 밝기와 똑같은 밝기를 감지한다고 가정한다. 니트는 밝기의 단위이다.)



[Killer-Point]

- ① ㉠은 실제 밝기와 카메라의 감지 밝기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겠군.
- ② ㉡는 감마 보정 이후의 실제 밝기와 출력 이미지의 밝기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겠군.
- ③ ㉢는 감마 보정 이후의 실제 밝기와 인간 눈의 감지 밝기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겠군.
- ④ ㉠과 ㉡를 보니, 실제 밝기가 40니트인 대상은 실제 밝기가 10니트인 대상과 달리 인간의 눈에 더 어둡게 보이겠군.
- ⑤ ㉡와 ㉢를 보니, 감마 보정 이후의 출력 이미지에서 10니트의 밝기로 표현된 것은 인간의 눈에는 10니트보다 밝게 보이겠군.

[정답 : ⑤]

<보기>의 ㉠, ㉡, ㉢ 그래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매우 어렵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래프의 모양 차이인데, 우상향이라는 방향은 같으니 기울기의 차이가 핵심이 된다.

먼저 ㉠을 보자. 실제 밝기가 10일 때 감지 밝기는 대략 25정도이다. 그리고 실제 밝기가 30일 때 감지 밝기는 대략 40 정도이다. 두 경우 다 실제 밝기보다 밝게 감지되는 것은 동일한데, 그 정도가 실제 밝기가 커질수록 작아진다. 다르게 말하면 그래프의 기울기가 어두운 부분에서는 급하고 밝은 부분으로 갈수록 작아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기울기가 작아진다는 것을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이를 지문의 어떤 내용과 연결시켜야 하는지 판단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다. 지문의 5문단에 따르면 우리의 눈은 색상이 어두운 영역에서 밝기 차이를 더 크게 느낀다. 즉 어두운 영역에서는 작은 밝기 변화도 크게 감지하지만, 밝은 영역에서는 잘 감지하지 못한다. 따라서 ㉠은 실제 밝기와 인간 눈의 감지 밝기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으로 ㉡를 보자. ㉡는 실제 밝기와 감지 밝기가 동일한 경우이다. <보기>에서 카메라는 실제의 밝기 차이를 그대로 감지한다고 했으므로 ㉡는 실제 밝기와 카메라의 감지 밝기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마지막으로 ㉔를 보자. ㉔는 ㉓와 반대로 어두운 부분에서 기울기가 작고, 밝은 부분으로 갈수록 기울기가 커진다. 우리의 눈은 카메라와 다르기 때문에 감마 조정이 필요한데, 지문의 5문단에 따르면 어두운 구역일수록 출력 이미지에서의 계조 단계간 밝기 차이를 작게 하고 색상이 밝은 구역일수록 출력 이미지에서 계조 단계 간 밝기 차이를 크게 해야 한다. 따라서 이와 일치하는 ㉔로, 이는 감마 보정 이후의 실제 밝기와 '출력 이미지의 밝기'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제 5번 선지를 보자. '감마 보정 이후'라고 하였으니, ㉔ 그래프를 봐야 한다.

감마 보정 이후 출력 이미지에서 10니트의 밝기로 표현된 것은 ㉔에서 y값이 10니트인 지점이다. 그리고 그 지점의 x값(= 30니트)은 실제 밝기이다.

감마 보정을 거친 출력 이미지는 인간의 눈에 실제 밝기와 똑같이 보이므로, 감마 보정을 거친 출력 이미지가 10니트로 표현된 것은 인간의 눈에 대략 30니트의 밝기로 보일 것이다.

#Chapter 2. “영역 별 주요 문항/지문” 집중 분석 - ① 문법

[참고] 문법의 경우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풀고 나서 자신이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문항을 풀기 위해 알아야 하는 개념들을 스스로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번][문제를 풀기 위해 알아야 할 개념 정리]

[품사별 합성어]

이 합성어를 다 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해 또 다른 어근이 되는 것이니, 각각의 품사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즉 직접 구성 성분 분석으로 쪼개놓고, 합성어임을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어근의 품사를 알아두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밑의 단어 중, 밑줄 친 단어는 각각의 어근의 품사와 합성된 단어의 품사까지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 합성 체언

- ① 두 어근이 모두 체언인 합성 명사
 - 예 앞뒤, 논밭, 마소, 돌다리, 똥오줌, 길바닥, 눈물, 춘추, 연세
- ② 관형어와 명사가 연결된 합성 명사
 - 예 새해, 새마을, 큰형, 어린이, 작은집, 날짐승, 열쇠(통사적 합성어)
- ③ 합성 대명사
 - 예 이것, 그것, 여러분(관형사 + 명사 = 대명사), 누구누구
- ④ 합성 수사
 - 예 예닐곱

(2) 합성 동사

- ① 두 어근이 모두 동사인 합성 동사
 - 예 들고나다, 파고들다, 타고나다, 갈아입다, 들어가다, 알아듣다, 돌아가다(통사적 합성어 - 연결 어미가 있으면!)
- ② 앞 어근은 형용사, 뒤 어근은 동사인 합성 동사
 - 예 기뻐하다, 좋아하다
- ③ 명사와 동사가 연결된 합성 동사
 - 예 힘들다, 본받다, 힘쓰다, 등지다(통사적 합성어 - 조사 생략은 일반적)

(3) 합성 형용사

- ① 형용사끼리 합성된 합성 형용사
 - 예 희디희다, 머나멀다, 짜디짜다, 높푸르다, 검붉다(비통사적 합성어 - 연결 어미가 없으면!)
- ② 동사끼리 합성된 합성 형용사
 - 예 깎아지르다
- ③ 명사와 형용사가 합성된 합성 형용사
 - 예 남부끄럽다, 손쉽다, 값싸다, 배부르다

④ 부사와 형용사가 결합된 합성 형용사

예 다시없다(부사 + 형용사 = 형용사)

⑤ 용언의 관형사형 + 명사 + 형용사의 구성인 합성 형용사

예 쓸데없다, 보잘것없다

(4) 합성 관형사, 합성 부사, 합성 감탄사

① 합성 관형사

예 한두, 스무남은

② 합성 부사

예 한바탕, 어느덧, 어느새, 밤낮, 이른바, 오다가다, 곧잘, 잘못, 군데군데, 하나하나, 두고두고, 더듬더듬, 오래오래

③ 합성 감탄사

예 아이참, 얼씨구절씨구, 웬걸

[선택지 해설]

13. ㉔

정답해설 답은 ㉔야. 우리는 이 문제에서 ‘맨 뒤에 오는 어근의 품사와 다른 품사를 가진 합성어’를 찾아야 해. 하나하나 살펴보자.

먼저 ㉑의 ‘이른바’를 보자. ‘이른바’는 분석하면 ‘이르(동사 어간)- + -(으)ㄴ(관형사형 전성 어미) + 바(명사)야. 이렇게 동사의 관형사형과 명사로 이루어진 합성어 ‘이른바’는 ‘그는 이른바 엘리트였다.’와 같이 쓰이는 ‘부사’야. ‘이른바’에서 마지막 어근은 ‘바’로 명사였지만 ‘이른바’는 ‘부사’니 ㉑에 해당해.

㉒의 ‘힘쓰다’는 분석하면 ‘힘(명사) + 쓰다(동사)야. 이렇게 명사와 동사로 이루어진 합성어 ‘힘쓰다’는 ‘승모는 학업에 힘썼다.’와 같이 쓰이는 ‘동사’야. ‘힘쓰다’에서 마지막 어근은 ‘쓰다’로 동사였고 ‘힘쓰다’도 동사니까 ㉒에 해당하지 않아.

㉓의 ‘기막히다’는 분석하면 ‘기(명사) + 막히다(동사)야. 이렇게 명사와 동사로 이루어진 합성어 ‘기막히다’는 ‘나는 그 일이 실패했다는 것이 기막혔다.’와 같이 사용되는 ‘형용사’야. 덧붙이자면 ‘기막히다’의 의미는 ‘어떠한 일이 놀랍거나 언짢아서 어이없다.’야. ‘기막히다’에서 마지막 어근은 ‘막히다’로 동사였지만 ‘기막히다’는 ‘형용사’이니 ㉓에 해당해.

㉔의 ‘뉘뉘’는 분석하면 ‘뉘(동사 어간)- + 뉘(명사)야. 이렇게 동사의 어간과 명사로 이루어진 합성어 ‘뉘뉘’는 ‘나는 뉘뉘를 좋아한다.’와 같이 사용되는 ‘명사’야. ‘뉘뉘’에서 마지막 어근은 ‘뉘’으로 명사고 ‘뉘뉘’도 명사니 ㉔에 해당하지 않아.

㉕의 ‘어느새’를 분석하면 ‘어느(관형사) + 새(“사이”의 준말 - 명사)야. 이렇게 관형사와 명사로 이루어진 합성어 ‘어느새’는 ‘코흘리개 어린애가 어느새 자라서 어른이 되었다.’와 같이 사용되는 ‘부사’야. ‘어느새’에서 마지막 어근은 ‘새(사이)’로 명사였지만 ‘어느새’는 부사이니 ㉕에 해당해.

㉖의 ‘남부럽다’를 분석하면 ‘남(명사) + 부럽다(형용사)야. 이렇게 명사와 형용사로 이루어진 합성어 ‘남부럽다’는 ‘내가 가진 재산이 남부럽지 않다.’와 같이 사용되는 ‘형용사’야. 이때 ‘남부럽다’의 의미는 ‘남의 좋은 점이나 우월한 점이 부럽다.’라는 의미야. ‘남부럽다’에서 마지막 어근은 ‘부럽다’로 형용사였고, ‘남부럽다’도 형용사이니 ㉖에 해당하지 않아.

[14번][문제를 풀기위해 알아야 할 개념 정리]

[음운의 변동]

음운 변동의 유형

- ① 교체 :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음운 변동 (A+B → A+C) 음운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0)
- ② 탈락 : 어떤 음운이 없어지는 음운 변동 (A+B → A) 음운 개수가 하나 준다.(-1)
- ③ 첨가 :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음운 변동 (A+B → A+'C'+B) 음운 개수가 하나 늘다.(+1)
- ④ 축약 : 두 음운이 하나로 합쳐지는 음운 변동 (A+B → C) 음운 개수가 하나 준다.(-1)

1. 음절 끝소리 규칙 : 받침소리로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이외의 자음이 이 일곱 자음 중 하나로 바뀌는 현상

- 어말 또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 앞 : 음절 끝소리가 일곱 자음 중 하나로 발음.
-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앞 : 음절 끝소리가 일곱 자음 중 하나로 바뀌고 연음.

받침	대표음	예시
ㄱ, ㅋ, ㆁ	ㄱ	국[국], 밖[박], 부엌[부억]
ㄴ	ㄴ	소원[소원]
ㄷ, ㅌ, ㅍ, ㅊ, ㅌ, ㅍ, ㅊ	ㄷ	날, 날, 낫, 낫, 낫, 낫, 낫 → [날]
ㄹ	ㄹ	말[말], 발[발]
ㅁ	ㅁ	감[감]
ㅂ, ㅍ	ㅂ	입, 앞 → [입]
ㅇ	ㅇ	강[강]

2. 유음화 : ‘ㄴ’이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으로 유음 ‘ㄹ’로 바뀌는 현상

비음	환경	결과	예시
ㄴ	ㄹ 앞이나 뒤	[ㄹ]	신라 → [실라], 물난리 → [물랄리], 똥는 → [똥는 → 똥른]

3. 비음화

① 비음(동)화 : 파열음 ‘ㄱ, ㄷ, ㅂ’이 비음 ‘ㅇ, ㄴ, ㅁ’ 앞에서 비음 ‘ㅇ, ㄴ, ㅁ’으로 바뀌는 현상

파열음	환경(비음)	결과	예시
ㄱ	ㅇ, ㄴ 앞	[ㅇ]	국물[궁물], 낫는다[낙는다→낭는다], 부엌문[부억문→부영문]
ㄷ	ㅇ, ㄴ 앞	[ㄴ]	닫는[단는], 걸모양[걸모양→건모양], 쫓는[쫓는→쫓는]
ㅂ	ㅇ, ㄴ 앞	[ㅁ]	밥물[밤물], 앞니[압니→암니], 값만[갑만→감만]

② ‘ㄹ’의 비음화 : ‘ㄹ’이 다른 자음 뒤에서 ‘ㄴ’으로 바뀜(①과 구분할 필요는 없다.)

유음	환경	결과	예시
ㄹ	ㄹ 이외의 자음 뒤	[ㄴ]	담력[담녁], 종로[종노], 대통령[대:통녕], 협력[협녁→협녁], 막론[막는→망는]

[참고] 결국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는 이것을 명확히 기억하면 좋다.

유음화, 비음화는 ① 교체 / ② 동화 / ③ 조음 방법이 바뀌는 것이다.

4. 구개음화 : 받침 'ㄷ, ㅌ(ㄹ)'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ㅇ'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ㄷ, ㅌ'이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

· 동화는 발음의 편의를 위한 현상으로, 어떤 음이 인접해 있는 음과 같거나 비슷하게 바뀌는 현상이다. 모음 'ㅣ'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발음되는 자음이 구개음(경구개음)인데, 'ㅣ'와 거리가 먼 'ㄷ, ㅌ'이 'ㅣ'와 거리가 가까운 'ㅈ, ㅊ'으로 발음되어 'ㅣ'와 조음 위치가 비슷하게 바뀐 것이므로 구개음화는 자음이 모음의 조음 위치에 동화된 현상이다.

받침	환경	결과	예시
ㄷ, ㅌ	'ㅣ'나 반모음 'ㅇ'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	[ㅈ, ㅊ]	굳이 → [구지], 발이 → [바치], 닫히다 → [다티다 → 다치다]

[참고 1] 구개음화는 ① 교체 / ② 동화 / ③ 조음 방법, 조음 위치가 둘 다 바뀌는 것이다.

[참고 2] 구개음화는 ① 통시적 변화 ② 자음 축약과의 비교(닫히다[다치다] vs 꽃히다[꼬치다])까지 알아두면 좋다.

5. 된소리되기 : 예사소리였던 것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

· 된소리되기는 매우 생산적인 음운 변동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조건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의 규칙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ㄱ, ㄷ, ㅂ, ㅅ, ㅈ → [ㄱ, ㄷ, ㅂ, ㅅ, ㅈ] / ①, ②, ③

① ㄱ, ㄷ, ㅂ 뒤

예) 국밥 → [국꺼밥], 꽃병 → [꽃꺼병], 값도 → [갑도]

-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나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된 'ㄱ, ㄷ, ㅂ' 뒤에서도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② 어간의 끝 자음 ㄴ, ㄹ 뒤

예) (동생)을 안고 → [안꺼고], (신발)을 신고 → [신꺼고], (의자에) 앉고 → [안꺼고]

- '자음군 단순화'를 겪은 후의 'ㄴ, ㄹ' 뒤에서도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 체언의 끝 자음 'ㄴ, ㄹ' 뒤에서는 된소리되기가 나타나지 않는다. 예) 신고(申告)[신고]

- 피동, 사동 접사 '-기'의 첫 자음은 이 변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예) 안기대[안꺼기대]: 안 + -기 + -다

③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

예) 할 것을 → [할꺼것을], 갈 데가 → [갈꺼데가], 만날 사람 → [만날꺼사람]

- '용언의 관형사형 + 명사'를 하나의 말로 발음할 때도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 '-ㄹ걸', '-ㄹ밖에', '-ㄹ게', '-ㄹ수록', '-ㄹ세라', '-ㄹ지라도' 등은 하나의 어미로 굳어진 형태로, 발음상으로 된소리되기를 겪는다.

④ ㄷ, ㅅ, ㅈ → [ㄷ, ㅅ, ㅈ] /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

예) 갈등 → [갈꺼등], 말살 → [말꺼살], 열정 → [열꺼정]

-----교체

6. 자음군 단순화 : 음절의 끝에 두 개의 자음(겹받침)이 올 때, 이 중에서 한 자음이 탈락하는 현상

· 우리말에서 음절 말 위치에 놓이는 자음은 하나만 올 수 있기 때문에 겹받침 중 하나가 탈락한다. 그러나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와 결합될 경우 두 자음이 모두 발음된다. 예) 앉으면 → [안꺼면]

[주의] 쌍자음 'ㄱ, ㅅ'은 겹받침이 아니므로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지 않는다.(음절 끝소리 규칙이다.)

겹받침	환경	결과	예시
체언의 겹받침 ㄱ, ㄲ, ㅅ, ㄷ, ㄹ, ㅂ, ㅅ, ㅈ, ㅊ, ㅋ, ㆁ	어말 또는 자음 앞	[ㄱ, ㄲ, ㅅ, ㄷ, ㄹ, ㅂ, ㅅ, ㅈ, ㅊ, ㅋ, ㆁ]	넋 → [넉], 여덟 → [여덜], 값 → [갑], 닭 → [닥], 삼 → [삼]
어간의 겹받침 ㄴ, ㄷ, ㄹ, ㅂ, ㅅ, ㅈ, ㅊ, ㅋ, ㆁ	자음 앞	[ㄴ, ㄷ, ㄹ, ㅂ, ㅅ, ㅈ, ㅊ, ㅋ, ㆁ]	얇고 → [안꼬], 많네 → [만:네], 핥고 → [할꼬], 앓는 → [알른], 없고 → [업:꼬], 굶다 → [굼:따], 읊다 → [읍:따] 단, 'ㄴ, ㄷ'의 'ㅎ'은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축약되기도 한다. 예) 많다 → [만타]

[참고] 특이한 겹받침 발음(알아두자)

- 어간의 겹받침 ㄹ → [ㄹ] / ㄱ 앞 예) 읽고 → [일꼬], 맑게 → [말께]
 ㄹ → [ㄱ] / ㄱ 이외의 자음 앞 예) 읽다 → [익따], 맑다 → [막따]
- 어간의 겹받침 ㅂ → [ㄹ] / 자음 앞 예) 넓고 → [널꼬], 짧게 → [잘께]
 ㅂ → [ㅂ] (뵈-/ 자음 앞, 넓죽하다, 넓둥글다)
 예) 뵈고 → [뵈꼬], 넓죽하다 → [넙쭈카다], 넓둥글다 → [넙똥글다]
⇒ 'ㅂ'은 주로 'ㄹ'이 남으나, 자음 앞에 나타난 '뵈-'과, '넓죽하다, 넓둥글다'의 'ㅂ'은 'ㅂ'이 남는다.

-----탈락

7. 거센소리되기 (자음 축약) : 예사소리 'ㄱ, ㄷ, ㅂ, ㅅ'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 [ㅋ, ㅌ, ㅍ, ㅊ]로 발음되는 현상

ㅎ + ㄱ, ㄷ, ㅂ, ㅅ → [ㅋ, ㅌ, ㅍ, ㅊ] 예) 놓고 → [노코], 앓던 → [안턴], 싫지 → [실치]
ㄱ, ㄷ, ㅂ, ㅅ + ㅎ → [ㅋ, ㅌ, ㅍ, ㅊ] 예) 낙하산 → [나카산], 망형 → [마텟], 값 흥정 → [가퐁정]

-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나 자음군 단순화를 거친 자음이 거센소리되기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축약

8. 'ㄴ' 첨가 :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할 때, 'ㄴ'이 새로 생기는 현상

- 두 단어나 구를 휴지 없이 발음할 때에도 'ㄴ'첨가 현상이 일어난다.
- 'ㄴ' 첨가 현상과 동일한 환경을 갖추어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 석유 → [서규], 송별연 → [송 : 버련]

∅ → [ㄴ] / 받침 자음 + ㅣ 또는 반모음 'ㅣ' 예) 맨- + 입 → [맨닙], 색 + 연필 → [생년필]

[주의] 'ㄴ' 첨가는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특히 'ㄴ' 첨가 후 유음화가 일어난 단어의 경우에는 'ㄴ'의 형태가 발음에 보이지 않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발야구[발랴구]의 경우 'ㄴ' 첨가 후 유음화가 일어난 것이지만 발음에는 'ㄹ' 밖에 보이지 않는다. 'ㄴ' 첨가 후 유음화되는 현상은 꼭 기억하자.

[선택지 해설]

14. ㉟

㉠	앉아	앉아 → [안자] 연음(음운의 변동에 해당하지 않음)
㉡	읊는	읊는 → 읊는 → 읊는 → [음는] 자음군 단순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	밝는	밝는 → 박는 → [방는] 자음군 단순화 비음화
㉣	읽지	읽지 → 익지 → [익찌] 자음군단순화 된소리되기
㉤	얇힐	얇힐 → [안칠] 거센소리되기
㉥	할이다	할이다 → 할티다 → 할치다 연음 구개음화

정답해설 답은 ㉠야. 먼저 ㉠의 ‘앓힐’에서는 앞 음절 종성 ‘ㅈ’과 뒤 음절 초성 ‘ㅎ’이 만나서 ‘ㅊ’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서 [안칠]이 돼. 다음으로 ㉠의 ‘할티다’에서는 우선 연음이 일어나서 앞 음절의 자음군 중 뒤의 ‘ㄷ’이 뒤로 연결되는 연음이 일어나서 ‘할티다’가 돼. 그 후, ‘ㄷ’과 ‘ㅣ모음’이 만나서 윗잇몸소리인 ‘ㄷ’이 센입천장소리인 ‘ㅊ’로 교체되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서 [할치다]가 돼. 즉, ㉠에서는 축약인 거센소리되기, ㉠에서는 교체인 구개음화가 일어나서 각각 다른 유형의 음운의 변동이 일어났지만 결과적으로 ‘ㅊ’라는 같은 음운이 발음되지.

[오답풀이]

①을 살펴보자. 먼저 ㉠의 ‘앓아’는 분석하면 ‘앓- + -아’로 용언의 어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고 있어. 이 경우 종성의 자음군 ‘ㅈ’ 중 뒤의 ‘ㅈ’이 바로 뒤의 어미로 연음 돼서 [안자]가 돼. 그런데 ‘연음’은 그저 음이 뒤로 이어질 뿐, 어떤 음운의 변동에 해당하지 않아. 그리고 음운의 개수도 ‘ㅈ, ㅊ, ㅉ, ㅊ’의 4개에서 ‘ㅈ, ㅊ, ㅉ, ㅊ’의 4개로 똑같아. 다음으로 ㉠의 ‘읊는’은 먼저 탈락인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서 ‘읊는’이 되고, 교체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서 ‘읊는’이 돼. 그 후, 종성의 파열음 ‘ㅂ’과 초성의 비음 ‘ㄴ’이 만나서 ‘ㅂ’이 비음 ‘ㅁ’으로 교체되는 비음화가 일어나서 [음는]이 돼. 자, 이때 ‘읊는[음는]’에서는 탈락인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니까 음운의 개수가 하나 줄어들어. 본래 ‘ㄴ, ㄹ, ㅍ, ㄴ, ㄴ, ㄴ’의 6개에서 ‘ㄴ, ㅁ, ㄴ, ㄴ, ㄴ’의 5개로 줄어들지. 정리하면 ㉠에서는 음운의 개수가 달라지는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지만 ㉠에서는 일어나지 않아.

②를 살펴보자. ㉠의 ‘읊는’은 먼저 탈락인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서 ‘읊는’이 되고, 교체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서 ‘읊는’이 돼. 그 후, 종성의 파열음 ‘ㅂ’과 초성의 비음 ‘ㄴ’이 만나서 ‘ㅂ’이 비음 ‘ㅁ’으로 교체되는 비음화가 일어나서 [음는]이 돼. 정리하면 자음군 단순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 총 3번의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 다음으로 ㉠의 ‘방는’의 경우 먼저 탈락인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서 ‘방는’이 된 후, 앞 음절 종성의 파열음 ‘ㄱ’과 뒤 음절 초성의 비음 ‘ㄴ’이 만나 ‘ㄱ’이 비음 ‘ㅇ’으로 교체되는 비음화가 일어나서 [방는]이 돼. 정리하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 총 2번의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

③을 살펴보자. ㉠의 ‘방는’의 경우 먼저 탈락인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서 ‘방는’이 된 후, 앞 음절 종성의 파열음 ‘ㄱ’과 뒤 음절 초성의 비음 ‘ㄴ’이 만나 ‘ㄱ’이 비음 ‘ㅇ’으로 교체되는 비음화가 일어나서 [방는]이 돼. 다음으로 ㉠의 ‘익지’에서는 먼저 탈락인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서 ‘익지’가 된 후, 각각 안울림소리인 ‘ㄱ’과 ‘ㅈ’이 만나 뒤의 ‘ㅈ’이 ‘ㅉ’라는 된소리로 교체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서 [익찌]가 돼. 정리하면 ㉠에서는 자음군 단순화, 비음화가 일어나고 ㉠에서는 자음군 단순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그런데 ㉠의 비음화는 ㉠에서 일어나지 않아.

④를 살펴보자. ㉠의 ‘익지’에서는 먼저 탈락인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서 ‘익지’가 된 후, 각각 안울림소리인 ‘ㄱ’과 ‘ㅈ’이 만나 뒤의 ‘ㅈ’이 ‘ㅉ’라는 된소리로 교체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서 [익찌]가 돼. 다음으로 ㉠의 ‘앓힐’에서는 앞 음절 종성의 ‘ㅈ’과 뒤 음절 초성의 ‘ㅎ’이 만나 ‘ㅊ’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서 [안칠]이 돼. 정리하면 ㉠에서만 두 음운이 하나로 축약되는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

[15번][문제를 풀기위해 알아야 할 개념 정리]

[중세의 목적격 조사]

형태	환경	예시
을 / 을	자음 뒤	ㅂ슴 + 을, ㅂ + 을
를 / 를	모음 뒤	늘애 + 를, ㅂ + 를
르	선행 체언이 모음으로 끝날 때, 수의적으로 사용	님금 位(위) + 르

- ‘을/을’, ‘를/를’의 교체는 모음조화에 따라 결정된다.

[중세의 모음조화]

- 개념 :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려 사용하는 현상
- 특징 : 15세기 중세에서는 엄격히 지켜지다가, 임진왜란 이후 문란해짐

한 단어 안, ‘체언 + 조사’, ‘어간 + 어미’에서 나타남

양성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등) ㉠ 말쑤(말씀), 나눈(나는), 마ᄃ니(막+으+니)
음성모음	ㅓ, ㅕ, ㅗ (ㅛ, ㅜ, ㅠ, ㅡ 등) ㉡ 서르(서로), 너는(너는), 머그니(먹+으+니)
중성모음	ㅣ (중성 모음은 양성, 음성 어느 음과도 어울림)

[선택지 해설]

15. ④

정답해설 답은 ④야. ‘허름’에서 목적격 조사가 붙은 체언은 ‘허름’이야. 선행 체언이 ‘ㄹ’이라는 자음으로 끝나므로 우선 ㉠의 음운 조건을 가져. 그럼 ‘을/을’ 둘 중에 하나가 목적격 조사로 오겠네. 그런데 ‘허름’의 끝음절 ‘름’의 모음이 ‘ㅡ’로 음성 모음에 해당하므로 ㉡의 음운 조건을 가져. 그러니까 ‘을/을’ 중 음성 모음을 가진 ‘을’이 와서 최종적으로 ‘허름 + 을’이 되는 거야.

[오답풀이]

①을 살펴보자. ‘고졸’에서 목적격 조사가 붙은 체언은 ‘곳’이야. 선행 체언이 ‘ㄷ’이라는 자음으로 끝나므로 우선 ㉠의 음운 조건을 가져. 그럼 ‘을/을’ 둘 중에 하나가 목적격 조사로 오겠네. 그런데 ‘곳’은 양성 모음 ‘ㅜ’를 가지므로 ㉡의 음운 조건을 가져. 그러니까 ‘을/을’ 중 양성 모음을 가진 ‘을’이 와서 최종적으로 ‘곳 + 을’이 되는 거야.

②를 살펴보자. ‘쁘들’에서 목적격 조사가 붙은 체언은 ‘쁘’이야. 선행 체언이 ‘ㄷ’이라는 자음으로 끝나므로 우선 ㉠의 음운 조건을 가져. 그럼 ‘을/을’ 둘 중에 하나가 목적격 조사로 오겠네. 그런데 ‘쁘’은 음성 모음 ‘ㅡ’를 가지므로 ㉡의 음운 조건을 가져. 그러니까 ‘을/을’ 중 음성 모음을 가진 ‘을’이 와서 최종적으로 ‘쁘 + 을’이 되는 거야.

③을 살펴보자. ‘나탈’에서 목적격 조사가 붙은 체언은 ‘나’야. 선행 체언이 ‘ㄴ’라는 모음으로 끝나므로 우선 ㉡의 음운 조건을 가져. 그럼 ‘를/를’ 둘 중에 하나가 목적격 조사로 오겠네. 그런데 ‘나’는 양성 모음 ‘ㅏ’를 가지므로 ㉡의 음운 조건을 가져. 그러니까 ‘를/를’ 중에 양성 모음을 가진 ‘를’이 와서 최종적으로 ‘나 + 를’이 되는 거야.

⑤를 살펴보자. ‘우리’에서 목적격 조사가 붙은 체언은 ‘우리’야. 그런데 ‘우리’에서는 ‘ㄴ’이나 ‘ㄹ’의 형태가 보이지 않아. 즉 대명사 ‘우리’ 뒤에 목적격조사 ‘ㄹ’이 온 예시로 ㉡에 해당해.

#Chapter 2. “영역 별 주요 문항/지문” 집중 분석 - ② 문학

[참고] 모의고사로 문제를 풀어 본 김에 EBS 연계 작품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버리지 말고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따로 EBS 연계를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출제 될 때마다 공부해두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현대시 [26~28번 지문] [오장환, ‘성탄제’]

“어미의 상처를 입에 대고 핏방울 어린 사슴이 생애하는 것 그는 어둠 골짜기에 밤에도 잠들 줄 모르며 쓴 샘과 깊은 풀을 넘어 눈 속에 하얀 꽃 따는 약초”

#EBS 수능특강 연계 #수능특강(313p) #수능특강 사용설명서(p311)

[작품 ‘한눈’에 보기]

[EBS 핵심 풀이]

이 작품은 **군국주의가 극단으로 치달던 1930년대에** 창작된 것으로, 그리운 어머니가 계신 고향을 떠나 타지를 떠돌아야 했던 시인의 심정과 우리 민족의 현실이 작품 속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표면적으로는 사냥이라는 위협적인 상황에서 **총을 맞은 어미 사슴과, 어미 사슴을 살리고자 그 곁을 지키려는 어린 사슴이 쫓기는 장면**을 통해 연약한 생명의 **순결성과 이를 유린하는 인간의 폭력성을 대비하며 폭력에 대한 성찰을 유도**하는 시이다. 이 작품에서 ‘어두운 숲’, ‘몰이꾼의 날카로운 소리’, ‘햇불’ 등은 생명 살상의 긴장감과 폭력성, 비정성을 드러낸다. 이와 대비적으로 사슴의 ‘따뜻한 핏방울’, ‘이슬’ 등은 연약한 생명의 순결성을 드러내며 ‘샘’과 ‘약초’는 생명의 소생에 대한 희망을 의미한다. 또한 이 작품은 **어둠과 밝음의 이미지, 붉은색과 하얀색의 색채 대비, 냉온 감각의 대비, 명사형 종결, 명령형 표현 등을 활용하여 독특한 미적 세계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죽은 이로 하여금 죽는 이를 묻게 하라.’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한 메시지는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어린 사슴이 들었을 법한 메시지로 죽어 가는 어미 사슴을 위로하고 ① **살아갈 길을 도모하도록 재촉하는 냉엄한 목소리로** 볼 수도 있고, ② **더 이상의 가학적인 폭력이 없도록 하라는 경고 또는 인간의 폭력성에 대한 고발의 의미로** 볼 수도 있다.

해제

㉠ 죽은 이로 하여금 죽는 이를 묻게 하라

①번 해석은 학생들이 단번에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것임을 안다.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먼저 여기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마태복음 8장)을 참고해 보자.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 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좃으라 하시니라”

이 말은 듣는 이로 하여금 일의 경중을 따지라는 뜻이다. ‘장사를 지내는 일’은 예수 본인을 좃는 일보다는 중요한 일이 아니므로 예수는 듣는 이에게 ‘너는 죽은 이에 곁에 있지 말고 내게 오라’고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맥락을 반영했을 때 해당 부분은 죽어가는 어미에 곁에 있지 말고 어서 살아갈 길을 도모하도록 어린 사슴에게 재촉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와 겹쳐 들리는 ‘쇠북 소리’는 종교적으로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용서와 화해의 성탄제를 연상시키면서 작품 속 생명 유린의 상황과 어우러져 폭력에 대한 성찰을 유도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이처럼 절망적인 시대 상황에서 생명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생명의 순결성과 이를 유린하는 인간 문명에 대한 비판**

[<보기>를 통한 작품 이해] “<보기>를 바탕으로 작품 내 주된 특징을 파악하자.”

‘한수 모의고사’ <보기>	
<p>오장환의 「성탄제」는 일제의 탄압이 극심해지던 1939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사냥꾼에게 쫓기는 동물의 모습을 통해 암울했던 시대 상황을 환기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어린 사슴’과 상처 입은 ‘어미 사슴’은 일제에 탄압 받던 우리 민족을 의미하는 한편, ‘어린 사슴’은 우리 민족이 처한 부정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를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다. 시인은 일제의 폭압에 시달리는 우리 민족의 모습과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p>	
<p><보기> poi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제의 탄압이 극심했던 시대적 배경 • 탄압을 받는 우리 민족을 의미하는 어린 사슴과 어미 사슴 한편 희망을 암시하기도 하는 어린 사슴

[EBS 연계 학습 ‘지문’ -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다.] “EBS 연계가 분명히 ‘전편’은 아니다. 그러나 시험장에서는 동아줄이 될 수 있다.”

(가)

산 밑까지 내려온 어두운 숲에
 물이꾼의 날카로운 소리는 들려오고,
 쫓기는 사슴이
 눈 위에 흘린 따뜻한 핏방울.

㉮ 눈 위에 흘린 따뜻한 핏방울
 작품의 핏방울은 작품의 주제를 전달하는 핵심적인 소재이다. 일차적인 의미로 핏방울은 쫓기는 어미 사슴이 물이꾼에 의해 차가운 눈 위에 흘린 것으로 선명한 색채 대비를 이루며, **생명의 위해를 가하는 폭력의 섬뜩함을 부각**한다고 볼 수 있다. 또 ‘따뜻한’이라는 수식어와 추운 겨울을 나타내는 배경을 연관 지으면 **따뜻한 핏방울은 곧 생명, 나아가 정화의 의미까지** 볼 수 있는데 이는 작품의 제목을 고려하면 제법 의미가 선명해진다.

→ 1연 : 피 흘리는 상태로 물이꾼에게 쫓기는 사슴

골짜기와 비탈을 따라 내리며
 넓은 언덕에
 밤 이슥히 햇불은 꺼지지 않는다.

→ 2연 : 밤까지 이어지는 물이꾼들의 햇불 행렬

못짐승들의 등 뒤를 쫓아
 며칠씩 산속에 잠자는 포수와 사냥개,
 나어린 사슴은 보았다
 오늘도 물이꾼이 메고 오는
표범과 늑대.

㉮ 표범과 늑대
 수식어에 주목하자. 사나운 맹수이자 포식자인 표범과 늑대는 그들의 먹잇감을 쫓으며 달리고 있지 않으며 이미 물이꾼에 의해 사냥 당한 채로, 물이꾼의 어깨에 메여 있다. 이는 **표범과 늑대, 사슴에 이르기까지 모든 짐승이 물이꾼의 표적이 된다는 점에서 현실에서의 무차별한 폭력성을 부각**하고 있다.

→ 3연 : 사냥으로 죽은 표범과 늑대를 목격하는 어린 사슴

어미의 상처를 입에 대고 핥으며
 어린 사슴이 생각하는 것
 그는
 어두운 골짜기에 밤에도 잠들 줄 모르며 솟는 샘과
 깊은 골을 넘어 눈 속에 하얀 꽃 피는 약초.

㉮ 어린 사슴의 생각

표면적으로 어린 사슴은 어미의 살육된 끔찍한 삶의 현장에 놓여있다. 그러나 이때 어린 사슴은 절망하기보다 오히려 샘과 약초를 꿈꾸며 생명의 소생을 꿈꾼다. 작품에선 시적 화자가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듯 어린 사슴을 통해 간접적으로 생명의 순결성, 그 소중함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연 : 다친 어미의 곁에서 어미의 치유를 소망하는 어린 사슴

아슬한 참으로 아슬한 곳에서 쇠북 소리 울린다.

㉮ EBS 확인하기 아슬한 곳에서 쇠북 소리

'아슬한'을 '위태롭다'의 의미로, '쇠북 소리'를 사냥과 관련된 소리로 본다면, 상처 입은 어미 사슴과 어린 사슴의 주변에 여전히 생명을 위협하는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때의 쇠북소리는 제목과 연관 지어 생각할 때 종소리, 곧 성탄제의 종소리(구원과 화해를 상징)로 볼 수도 있다.

죽은 이로 하여금
 죽는 이를 묻게 하라.

→ 5연 : 들려오는 쇠북 소리와 극한 상황에서의 목소리

길이 돌아가는 사슴의
 두 뺨에는
 맑은 이슬이 내리고
 눈 위엔 아직도 따뜻한 핏방울.....

㉮ EBS 확인하기 맑은 이슬

사슴의 '두 뺨'에 내린 '맑은 이슬'은 '어미의 상처를 핥'는 어린 사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핏방울'만 남겨진 장면으로 미루어 ① 어린 사슴을 두고 죽어 가는 어미의 안타까움, 슬픔 등과 관련된다고 볼 수도 있고, ② 어미를 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어린 사슴의 슬픔과 관련된다고 볼 수도 있다.

→ 6연 : 어미 사슴의 죽음과 연약한 생명의 순결성

- 오장환, 「성탄제」 -

㉮ EBS 확인하기 제목이 '성탄제'인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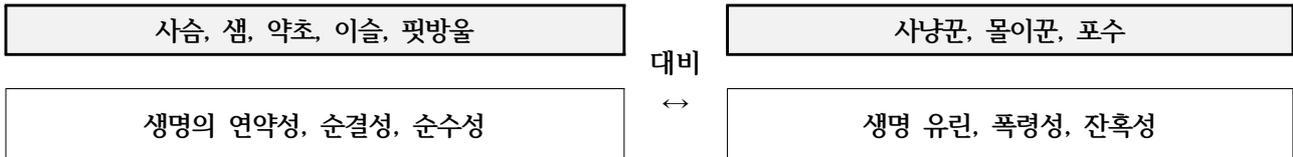
'성탄제'가 사랑과 용서를 전하는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인 데 반해 이 시에서는 '상처' 입은 '어미'와 '어린 사슴'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생명에 대한 억압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통해 생명의 고귀함에 대한 성찰을 유도하고자 역설적 상황을 부각하는 제목을 붙인 것으로 볼 수 있다

[EBS 연계 학습 '작품'] “EBS 연계가 분명히 ‘전색’는 아니다. 그러나 시험상에서는 동의어가 될 수 있다.”

EBS 사용설명서, 「이것만은 꼭!」

[포인트1] 소재의 의미

- 이 작품에서는 생명의 순결성, 연약성을 의미하는 소재와 생명의 폭력성을 의미하는 소재가 뚜렷이 대비되고 있음.



[포인트2] 표현상의 특징

흰색과 붉은색의 강렬한 색채 대비	‘눈’과 ‘핏방울’
감각적 이미지의 사용으로 주제 강조	‘날카로운 소리’, ‘따뜻한 빗방울’
여운을 남김.	말줄임표의 사용

EBS 사용설명서, 「더 알아보기」

성탄제에 대한 평론가들의 의견

- 이 작품에서는 생명의 순결성, 연약성을 의미하는 소재와 생명의 폭력성을 의미하는 소재가 뚜렷이 대비되고 있음.

“어둡고 음산한 분위기로 이끌어 원색적인 표현법을 구사하고 있다.”
 “일제 말 암담한 상황에 처한 민족적 자아의 모습을 상징화하고 있다.”
 “비극적 설정과 분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생명력을 포착하여 죽음 의식을 감각적으로 승화시켜 드러내고 있다.”

⇒ 이 작품은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죽음의 이미지와 생명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

[참고하기] EBS 'Q & A'

Q.	표현상 특징에서 ‘감각의 대비’는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요?
A.	시에서 감각과 관련되어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습이나 느낌을 이미지라고 합니다. 감각으로는 시각(색채, 움직임, 모양 등), 청각(소리, 음성, 음향 등), 후각(냄새 향기 등), 미각(혀로 느끼는 맛), 촉각(차가움, 뜨거움) 등이 있습니다. 감각의 대비는 이러한 감각이 서로 두드러지게 차이를 이루며 시적 의미를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냉온 감각의 대비’란 차가움과 따뜻함의 대비를, ‘명암의 대비’란 밝음과 어두움의 대비를, ‘색채의 대비’란 눈에 띄게 차이가 인식되는 색채를 나타내는 시어의 대비를 말합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감각의 대비를 통해 대상의 특징을 부각하거나, 대상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끌어내는 등 다양한 의미와 분위기, 느낌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수능에서도 작품의 구절에서 뚜렷한 감각의 대비를 드러내는 부분을 찾아 그 효과를 판단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으니, 구체적인 작품을 통해 이것을 파악해 보도록 합니다.

함께 볼 지문 "비교하기, <탄압과 시(詩)>, 평가원 - '2010학년도 6월 8 김영랑, 「거문고」 外"

(가)

처마 끝에 서린 연기 따라
 포도순이 기어 나가는 밤, 소리 없이,
 가물을 땅에 시며든 더운 김이
 등에 서리나니, 훈훈히,
 아아, 이 애 몸이 또 달아 오르노나.
 가쁜 숨결을 드내쉬노니, 박나비*처럼,
 가녀린 머리, 주사* 짝은 자리에, 입술을 붙이고
 나는 중얼거리다, 나는 중얼거리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다신교도(多神教徒)와도 같이.
 아아, 이 애가 애자지게 보채노나!
 불도 약도 달도 없는 밤,
 아득한 하늘에는
 별들이 참별 날으듯 하여라.

]
 [A]
]
]
 [B]
]
]
 [C]
]

- 정지용, 「발열(發熱)」 -

*박나비: 흰제비불나방. 몸이 흰색이고 배에는 붉은 줄무늬가 있음.
 *주사(朱砂) : 짙은 붉은색의 광물질로, 한방에서 열을 내리는 데 사용하였음.

(나)

검은 벽에 기대선 채로
 해가 스무 번 바뀌었는디
 내 기린(麒麟)*은 영영 울지를 못한다
 그 가슴을 통 흔들고 간 노인의 손
 지금 어느 끝없는 향연(饗宴)에 높이 앉았으려니
 땅 우의 외론 기린이야 하마 잊어졌을라
 바깥은 거친 들 이리떼만 몰려다니고
 사람인 양 꾸민 잔나비떼들 쏘다다니어
 내 기린은 맘들 곳 몸들 곳 없어지다
 문 아주 굳이 닫고 벽에 기대선 채
 해가 또 한 번 바뀌거늘
 이 밤도 내 기린은 맘 놓고 울들 못한다

]
 [D]
]

- 김영랑, 「거문고」 -

*기린: 성인이 이 세상에 나올 징조로 나타난다는 상상 속의 동물.

(다)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들,
 제설차 한 대 울 리 없는
 깊은 백색의 골짜기를 메우며
 굵은 눈발은 휘몰아치고,
 쪼그마한 솟덩이만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굴뚝새가 눈보라 속으로 날아간다.
 길 잃은 등산객들 있을 듯
 외딴 두메마을 길 끊어 놓을 듯
 은하수가 펄펄 쏟아져 날아오듯 덤벼드는 눈,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쪼그마한 솟덩이만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날아온다 꺼칠한 굴뚝새가
 서둘러 뒷간에 몸을 감춘다.
 그 어디에 부리부리한 술개라도 도사리고 있다는 것일까.
 길 잃고 굶주리는 산짐승들 있을 듯
 눈더미의 무게로 소나무 가지들이 부러질 듯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
 때죽나무와 때 끓이는 외딴집 굴뚝에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과 골짜기에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E]

- 최승호, 「대설주의보」 -

문제 1	(가)~(다)의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제 선지	① (가), (나)는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여 운율감을 느끼게 한다. ② (가), (다)는 명사로 끝맺은 시행을 반복하여 시적인 여운을 준다. ③ (나), (다)는 의인화된 사물을 등장시켜 독자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 ④ (가), (나), (다)는 어순의 도치를 통해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⑤ (가), (나), (다)는 대상의 현재 상황을 부각하여 시적 정서를 형성하고 있다.
정답 해설	⑤ (가)에는 화자의 어린 아들이 열에 앓고 있는 모습이, (나)에는 화자가 지켜보고 있는 '기린(거문고)'가 울지 못하는 상황이, (다)에는 눈보라 속에서 '굴뚝새'가 처한 상황이 부각되어 시적 정서가 형성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나는 중얼거리다'의 문장이 반복되면서 운율감이 느껴지고 있지만, 시행이 반복된 것이라 할 수 없다. (나)에서도 시행의 반복이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지는 않다. ② (가)에서 명사로 끝난 시행은 11행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반복이 시적 여운을 주었다고 할 수 없다. (다)에서는 명사로 끝맺은 시행이 여러 차례 반복되며 화자가 인식하는 암담한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 ③ (나)에는 거문고가 기린으로 의인화되었다. 또한 (다)에는 눈보라가 힘찬 군단으로 표현되어 마치 군대를 연상시킨다. 하지만 이러한 의인화의 표현이 독자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다)에서의 표현은 계엄령 하의 군대를 연상시키기에 강한 거부감을 불러온다. ④ 어순의 도치를 통해 긴장감이 느껴지는 작품은 (가)이다. (가)에서 2행은 '포도순이 소리 없이 기어 나가는 밤'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데, '소리 없이'를 행의 맨 뒤로 보냈으며, 4행은 '등에 훈훈히 서리나니'로 표현되어야 자연스러운데 '훈훈히'를 행의 뒤로 보냈고, 6행에서는 '박나 비처럼 드내쉬노니'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을 도치하여 표현했다. 또한 8행과 9행 역시 도치되어 표현되었는데, 이러한 어순의 도치는 작품 전반에서 긴장감을 느끼게 한다.

<p>문제 2</p>	<p>다음은 (가)를 영상시로 제작하기 위한 계획서이다. 이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p>
<p>문제 선지</p>	<p>① ㄱ, ㄴ은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와 시간을 제시하고 작품 초반부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데 효과적이겠군. ② ㄷ은 안타까운 상황과 분위기를 전달하고 '애'가 겪는 고통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③ ㄹ로 '애'의 모습을 담으면 감상자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이 되겠군. ④ ㄹ은 화자의 간절한 심정과 내면 심리를 엿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어. ⑤ ㅂ, ㅅ은 의식이 혼미해진 '애'의 상태를 보여 주는 데 효과적일 것 같아.</p>
<p>정답 해설</p>	<p>⑤ (가)에서 화자의 아이는 열병을 앓고 있다. 화자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도 안타깝게 아이를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화자의 절망적인 상황이 '불도 약도 달도 없는 밤'으로 표현되었으며, 아득한 하늘을 바라보는 화자의 망연한 표정이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C]의 장면을 ㅂ, ㅅ처럼 영상화하는 것이 의식이 혼미해진 '애'의 상태를 보여주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p>
<p>오답 풀이</p>	<p>① [A] 장면에서 시선은 위에서 아래로 이동하면서 처마 밑 어느 집에 고정되고 있다. 시간은 밤이요, 땅에 스며든 더운 김이 등에 서린다는 표현에서 더운 계절임을 알 수 있다. ② 아이는 지금 열병을 앓고 있기에 '박나비, 주사'의 표현에서 열병의 붉은 색이 두드러지고, 아이의 가쁜 호흡을 음향으로 들려주면 아이의 고통스런 상황을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아이의 앓고 있는 모습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준다면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공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④ '아아'의 감탄사는 아픈 아이를 바라보는 화자의 간절한 심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p>
<p>문제 3</p>	<p><보기>의 설명을 듣고, 학생들이 (나)와 (다)에 대해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p>
<p><보기></p>	<p>김 선생님: 순수 서정 시인 김영랑은 1930년대 후반에 이르러 더 이상 마음속 울림을 맑은 가락으로 빚어낸 시를 쓸 수 없었어요. 모국어로 시를 쓰는 것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이지요. 거문고는 이런 현실을 우의적 표현으로 비판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비슷한 맥락에서 1980년대 초반 많은 독자들의 호응을 얻은 대설주의보를 읽어 보지요. 이 작품은 새로운 권력 집단이 등장해서 강압 통치를 했던 시대와 관련이 깊습니다.</p>
<p>문제 선지</p>	<p>① (나)와 (다) 모두 생각의 표현이 자유롭지 못했던 시기에 창작되었어. ② (나)와 (다) 모두 고난 극복 의지와 미래에 대한 전망이 나타나지 않아. ③ (나)의 '울지를 못한다'와 (다)의 '내리는'은 모두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어. ④ (나)의 '기린'은 '노인'에게, (다)의 '굴뚝새'는 세상 사람들 에게 외면당한 존재야. ⑤ (나)의 '이리떼'와 '잔나비떼'처럼, (다)의 '술개'는 부당한 권력을 암시하는 소재야.</p>
<p>정답 해설</p>	<p>④ <보기>는 (나)의 작품이 어떤 배경에서 탄생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다) 역시 (나)와 마찬가지로 암울한 시대적 상황 하에 탄생하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결국 두 작품을 감상함에 있어 일정한 준거로서의 틀을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에서 '노인'은 국권이 자유로울 때 '기린'을 마음껏 울게 했던 존재로 추억할 대상이라 할 수 있다. 화자의 '기린'은 이제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고 있다. 또한 (다)의 '굴뚝새'는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기보다 계엄령으로 표현된 눈보라 속에서 고립된 존재라 할 수 있다.</p>
<p>오답 풀이</p>	<p>① <보기>에서 (나)는 '모국어로 시를 쓰는 것 자체가 어려웠'던 시대에 쓰였다고 했다. (다) 역시 '새로운 권력 집단이 등장해서 강압 통치를 했던 시대와 관련이 있다고 했다.</p>

	<p>② (나)에서 화자는 마음껏 울지 못하는 시대 상황에 절망하고 있다. 지금은 '이리떼, 잔나비떼'만 몰려다니고 있는 암울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난 극복 의지나 미래에 대한 전망은 잃어낼 수 없다. (다)는 눈보라의 상황 속에서 파닥이며 힘겹게 날아가는 '굴뚝새'에게서 암울한 시대 상황에 힘겹게 버티고 있는 강인한 생명력을 읽어낼 수 있으나 '굴뚝새'는 '뒷간'에 몸을 감추고 만다. 그렇기에 여기에서도 고난의 극복 의지나 미래에 대한 전망은 잃어낼 수 없다. '대설주의보, 군단, 계엄령'으로 표현된 암울한 상황만이 강조되고 있다.</p> <p>③ (나)의 '울지를 못한다'의 대상은 표면적으로는 '기린'이지만, 동시에 화자를 가리키기도 하는 중의적 표현이다. (다)에서 '내리는' 역시 그 대상은 '눈'이면서 동시에 '계엄령'이라 할 수 있다.</p> <p>⑤ (나)에서 '이리떼'와 '잔나비떼'는 '내 기린'을 제약하는 것이며, (다)에서 '솔개'는 '굴뚝새'를 '뒷간'에 숨게 만든다.</p>
<p>문제 4</p>	<p>[D]와 [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p>
<p>문제 선지</p>	<p>① [D]와 [E]는 자아 성찰을 위한 내면의 공간이 나타난다. ② [D]와 [E]는 화자의 심리적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를 보여 준다. ③ [D]와 [E]는 표면에 드러난 화자가 대상을 관찰하여 묘사한다. ④ [D]에는 화자와 대상의 거리감이, [E]에는 화자와 대상의 일체감이 나타난다. ⑤ [D]에는 화자가 선택한 은거의 공간이, [E]에는 생명이 위협받는 고립의 공간이 암시된다.</p>
<p>정답 해설</p>	<p>⑤ [D]에서 화자가 처한 상황은 문 아주 닫고 벽에 기댄 채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기린'의 상황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닫힌 공간은 바로 화자 스스로가 선택한 은거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E]는 '산짐승'들로 하여금 길 잃고 굶주리게 하며, '소나무 가지'를 부러뜨리려는 눈보라가 내려치는 상황이다. '굴뚝새'마저 몸을 감추게 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고립의 공간인 것이다.</p>
<p>오답 풀이</p>	<p>① [D]는 화자가 선택한 고립된 공간이며, 동시에 내면의 성찰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E]의 공간은 존재들을 억압하는 외부적 공간이다. ② [D]와 [E]의 상황 모두 화자를 힘들게 하고, 심리적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③ [D]에서 표면에 드러난 화자 '내'는 '기린'이라는 대상을 관찰하여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E]에서는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고 대상에 대한 관찰과 묘사만 드러나 있다. ④ [D]에서 화자는 대상인 '기린'과 일체감을 드러내고 있으나, [E]에서 화자는 대상인 '눈보라'와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다.</p>

고전시가 [34~38번 지문] [최현, '명월음']

“풍운(風雲)이 변화란을 본색(本色)이 어디 가운 우리도 단심(丹心)을 지켜서 명월 불 날 기다리노라...”

#EBS 수능완성 연계 #수능완성(p95)

[작품 '한눈'에 보기] “이해를 조금 돕는 정로 개입계”

[내용 구성]	
• 서사 :	온 세상을 밝게 비추는 달에 대한 예찬
• 본사	
본사 1 :	거문고를 타며 밝은 달빛의 은혜에 감사해 함.
본사 2 :	구름이 몰려와 달을 가림을 근심함.
본사 3 :	구름을 걷어 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함.
• 결사 :	단심을 지켜 다시 명월 불 날을 기다림.
[EBS 핵심 풀이]	
해제	이 작품은 임진왜란 때 의병에 가담했던 최현이 몽진 길에 오른 임금을 '명월'에 빗대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과 임금을 그리워하는 정을 노래한 가사이다. 화자는 임진왜란으로 인한 절망적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나라의 환란을 물리치고 새로운 날을 맞이하고자 하는 희망을 바탕으로 임금과 나라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화자의 이와 같은 마음이 다시 '명월'을 볼 것을 기다리겠다는 소망으로 드러나 있다.
주제	나라를 걱정하고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

[<보기>를 통한 작품 이해] “<보기>를 바탕으로 작품 내 주된 특징을 파악하라.”

'한수 모의고사' <보기>	
	최현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하고자 고향인 선산의 향민들을 규합하여 의병을 일으켰다. 임진왜란 당시에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명월음」에서도 이러한 최현의 우국충정(憂國衷情)을 엿볼 수 있다. 작가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① 선정(善政)이 베풀어지던 전란 전의 상황 과 전란이 일어나 ② 위태로워진 나라를 염려하는 자신의 모습 을 보여 주는 한편,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③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자신의 무능함을 한탄하는 모습 을 보이기도 한다.

[EBS 연계 학습 '지문' -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다.] “EBS 연계가 분명히 ‘진짜’는 아니다. 그러나 시험장에서는 동아들이 될 수 있다.”

(가)	<p>돌아 불근 돌아 청천(靑天)에 씻는 돌아</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달</p> <p>보편적으로 달은 문학 작품에서 기원 혹은 의탁하는 대상이거나 왕이거나 절대자 등으로 묘사된다. 본 작품에선 물론 달을 임금으로 볼 수 있으나 조금 더 확대하여 세상의 선악을 비추는 공명정대한 존재 자체로 볼 수 있다.</p> </div>
-----	--

얼굴은 언제 나며 붉기논 뉘 삼기뇨
 서산에 히 숨고 긴 밤이 침침(沈沈)흔 제
 청렴(淸寔)*을 여러 노코 보경(寶鏡)을 닷가 내니

㉮ 청렴과 보경

청렴이란 젊은 여인이 쓰는 화장대이며 보경은 귀중한 거울을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화자가 이러한 소재들을 다루는 것으로 생각해 볼 때 **시적 화자의 성별은 여성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편 광휘(一片光輝)*에 팔방(八方)이 다 붉거다
 흑밤 촌브람에 눈이 온가 서리 온가
 어이 혼 건곤(乾坤)이 백옥경(白玉京)*이 도엿논고

㉮ EBS 확인하기 밤사이 눈이 와 온 세상을 하얗게 덮은 풍경을 표현한 것이므로, 눈서리가 내려 온 천지가 하얗고 아름답게 변한 정경을 예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환한 달을 예찬하고 있는 맥락을 고려할 때 실제 서리와 눈이 내렸다가보다 **세상 구석구석을 밝게 비추고 있는 달과 그 풍경을 하얀 눈과 서리가 내린 모습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라 볼 수도 있다.

동창이 채 붉거늘 수정렴을 거러 놓고
 요금(瑤琴)을 빗기 안아 봉황곡을 타 집흐니
 성성(聲聲)이 청원(淸源)하여* 태공에 들어가니
 파사(婆娑)* 계수하(桂樹下)에 옥토(玉兔)*도 도라본다
 유리 호박주를 가득 부어 권차하니
 유정한 상아*도 잔 밑에 빛난다
 청광(淸光)을 머금으니 폐부에 흘러들어

㉮ EBS 확인하기 유리 호박주를 부어 달에 권한 잔 밑이 맑은 빛을 머금으니 그 빛이 마음속 깊이 흘러든다는 의미이므로, 맑은 달빛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호호한 흥중이 아니 비친 구석 없다
 옷가슴 헤쳐 내어 광한전에 돌아앉아
 마음에 먹은 뜻을 다 스로려 헉엇더니
 심술긋은 뜬구름이 어디러셔 7리는고

㉮ EBS 확인하기 마음 먹은 바를 명월(明月)에 다 아뢰려 했는데, 뜬구름이 가려서 그럴 기회를 만들어 주지 않는 것에 대해 한탄하는 것이므로, 소망을 실현할 수 없는 현실에서 오는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천지 회맹(天地晦盲)*하야 백물(百物)을 다 못 보니
 상하 사방(上下四方)애 갈 길흠 모를노다
 요잠 반각(遙岑半角)*애 넷 빗치 비취논 듯
 구름 사이로 나오더니 세구름 밋쳐 나니
 희미흔 혼 비치 점점 아득하여 온다
 중문(重門)을 다다 노코 정반(庭畔)에 썩로 서서
 매화 혼 가지 계수나무 그림자인가 도라보니
 처량한 암향(暗香)이 날 조쳐 시름흔다

㉮ 처량한 암향(暗香)이 날 조쳐 시름한다

화자는 천지 회맹, 곧 캄캄하여 백물을 다 못 보는 상황에 처해 있다. 화자는 그 이유를 '썰구름 밋쳐 나니' 즉 '떼구름' 탓이라고 말한다. 기껏 구름사이로 나온 구름이 떼구름에 가려 빛을 잃어 그 환한 달의 빛줄기 한 가닥마저 없는 아득한 상황이 된 것이다. 화자는 이를 암향에 이입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소렴(疎簾)을 지워 노코 동방(洞房)에 혼자 안자
 금작경(金鵲鏡)* 쓸터 내여 벽상(壁上)에 걸어 두니
 제 몸만 불키고 늙 비칠 줄 모르느다
 단단 환선(團團紈扇)*으로 긴 바람 브쳐 내여
 이 구름 다 것고자 기원 녹죽(淇園綠竹)*으로
 일천 장(一千丈) 뷔를 미야 저 구름 다 썰고자
 하늘은 만 리오 이 몸은 진토(塵土)*이니
쓸쓸한 이내 뜻이 헤느니 허사로다

EBBS 확인하기 구름을 다 걷어 내고 쓸어 내고 싶은 뜻을 갖고 있지만 자신의 처지가 너무 보잘것없어 이러한 뜻을 생각하는 것이 다 부질없는 일이라는 의미이다

긋득 시름 한디 긴 밤이 어도록고
 뒤척이며 잠 못 이뤄 다시곰 심각흐니
 영허 소장(盈虛消長)*이 천지도 무궁흐니,
풍운(風雲)이 변화흔들 본색(本色)이 어디 가료

EBBS 확인하기 '우리도 단심을 지켜서 명월 볼 날 기다리노라'라는 표현과 연결 지어 볼 때, 현재의 부정적 상황이 다시 본래의 긍정적 상황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도 단심(丹心)을 지켜서 명월 볼 날 기다리노라

- 최현, 「명월음」 -

- * 청렴: 젊은 여인이 쓰는 화장대.
- * 백옥경: 옥황상제가 지낸다는 궁궐.
- * 일편광휘: 환하게 빛나는 조각 달.
- * 성성이 청원하여: 소리마다 맑고 그윽하여.
- * 파사: 너울너울 춤추는 모양. 또는 배회하는 모양.
- * 상야: 달 속에 있다는 전설 속의 선녀. 여기서는 달을 비유함.
- * 계수하에 옥토: 달에 있는 계수나무 아래의 옥토끼.
- * 천지 회맹: 하늘과 땅이 캄캄하여 눈이 안 보임.
- * 요잠 반각: 멀리 보이는 우뚝 솟은 산봉우리의 반쪽 끝.
- * 금작경: 황금까치를 조각한 거울.
- * 단단 환선: 얇은 비단으로 만든 부채.
- * 기원 녹죽: 중국 허난성 기현 정원에 있는 푸른 대나무.
- * 진토: 티끌과 흙.
- * 영허 소장: 달이 차고 기울며, 초목이 자라고 스러짐.

[EBS 연계 학습 '작품'] "EBS 연재가 분명히 '전'은 아니다. 그러나 시험에서는 동아줄이 될 수 있다."

EBS 연계 POINT	
해제	이 작품은 임진왜란 때 의병에 가담했던 최현이 몽진 길에 오른 임금을 '명월'에 빗대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과 임금을 그리워하는 정을 노래한 가사이다. 화자는 임진왜란으로 인한 절망적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나라의 환란을 물리치고 새로운 날을 맞이하고자 하는 희망을 바탕으로 임금과 나라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화자의 이와 같은 마음이 다시 '명월'을 볼 것을 기다리겠다는 소망으로 드러나 있다.
주제	나라를 걱정하고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
EBS <보기> 문제	
<보기>	「명월음」은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걱정하고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상징적 소재를 활용하여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전란의 상황에서 임금의 선정을 기대하는 백성들의 마음과 혼란에 빠져 있는 부정적 시대 상황을 '달'과 '구름'이라는 상징적 소재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특히 '거울'은 달빛을 받아 다시 온 세상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임금의 선정이 백성들에게 잘 미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신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발문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지	① '보경을 닦아 내니' 달빛이 '팔방이 다 밝'도록 비춘다는 것은, 신하가 제 역할을 할 때 임금의 선정이 백성들에게 잘 미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군. ② '요금'으로 '봉황곡'을 연주하니 '계수하에 옥토도 돌아'보는 것은, 임금이 풍류에 젖은 신하들로 인해 자신의 선정이 백성들에게 미치지 못함을 걱정하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겠군. ③ 달빛이 비추는 데가 없어 '천지 회맹하여' '갈 길을 모르겠다'는 것은, 전란으로 임금의 선정이 미치지 않아 백성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군. ④ '금작경 닦아 내어 벽 위에 걸어 두'어도 '남 비칠 줄 모'르는 것은, 자신의 안위만 도모하는 신하가 임금의 선정이 백성들에게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는 것을 비판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군. ⑤ '일천 장'이나 되는 긴 빛자루로 '저 구름 다 쓸'어 버리고 싶다는 것은, 임금의 선정이 백성들에게 미치는 것을 방해하는 전란이 끝나기를 소망하는 심정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군.
정답 해설	② '요금'으로 '봉황곡'을 연주하니 '계수하에 옥토도 돌아'보는 것은, 임금(명월)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 전해졌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보기>에서 신하를 의미하는 것은 '거울'이라고 했으므로, 이 부분을 임금이 풍류에 젖은 신하들로 인해 자신의 선정이 백성들에게 미치지 못함을 걱정하는 상황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Chapter 2. “영역 별 주요 문항/지문” 집중 분석 - ③ 독서

[참고] 아래 분석은 강사 본인이 직접 시험을 치르고 실제 읽었던 느낌을 기억하여 그대로 쓴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분석의 내용은 실전에서 이 정도 읽어주면 된다는 ‘선’을 여러분의 ‘선’과 맞춰보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고, 그 와중에 이 정보가 왜 중요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딱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정도는 읽었어야 하는 최소한의 ‘선’과 굳이 이해를 하자면 이렇다는 내용적인 측면입니다.

기술[39~42번 지문][디스플레이의 색채 구현 기술]

- 설명을 읽기 전에 먼저 한 번 정독할 것을 추천합니다.

컴퓨터 모니터나 텔레비전, 스마트폰 등의 디스플레이에서 화면의 이미지를 이루는 최소 단위를 화소라고 한다. 동일한 면적의 화면에서 화소가 많을수록 더 선명한 이미지 표현이 가능하며, 이미지의 선명도를 뜻하는 해상도는 보통 ‘가로 × 세로’의 화소수로 나타낸다. 각 화소는 빛의 삼원색인 빨강(R), 녹색(G), 파랑(B)의 빛을 투과시키거나 발(發)하는 세 개의 하위 화소로 구성되는데, R, G, B의 빛이 적절한 밝기로 혼합되어 한 화소의 색상이 다양하게 구현된다. 가령 R과 G의 빛이 혼합되면 노란색이, 세 빛이 모두 혼합되면 하얀색이 구현되며 세 빛이 모두 혼합되지 않으면 검정색이 구현된다.

디스플레이는 별도의 광원에서 나온 빛이 R, G, B의 색채 필터가 부착된 하위 화소를 투과하여 화소의 색상을 구현하는 방식인 수광형과 하위 화소의 소재 자체에서 R, G, B의 빛이 나와 화소의 색상을 구현하는 방식인 발광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오늘날에는 이미지 표현에 필요한 하위 화소에만 전류를 공급해오므로 전력 소모가 더 낮고 별도의 광원이 필요치 않으므로 디스플레이 패널을 더 얇게 만들 수 있는 발광형이 점점 더 널리 쓰이고 있는 추세이다. 대표적인 수광형 디스플레이인 액정 디스플레이(LCD)와 달리 액정이나 색채 필터 같은 빛 색상의 순도를 감소시키는 요소가 없어 색 재현력이 매우 우수하다는 점도 발광형이 각광받게 된 이유이다. 대표적인 발광형 디스플레이로는 전류를 흘려 주면 빛을 발하는 유기 발광 물질을 활용한 유기 발광 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OLED 디스플레이의 한 화소를 수직으로 잘라 낸 단면은 전자(-)를 주입하는 전극인 캐소드와 양공(+)을 주입하는 전극인 애노드 사이에 발광층이 끼어 있는 구조이다. 발광층에는 전류를 흘려 주면 각각 R, G, B의 빛을 내는 유기 발광 물질이 증착^{*}되어 있는데, 이 물질들이 각각 하나의 하위 화소를 이룬다. 유기 발광 물질에 전류를 흘려 주면 빛이 나오는 현상을 전계 발광이라고 한다. 이는 캐소드에서 주입된 전자와 애노드에서 주입된 양공이 발광층에서 만나 들뜬상태의 전자-양공 쌍인 여기자가 생성되고 이것이 금세 바닥상태로 떨어지면서, 들뜬상태와 바닥상태의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빛의 형태로 발하는 현상이다. 유기 발광 물질에 따라 이 에너지 차이가 다르며, 이 차이가 클수록 파장이 짧은 빛을 방출한다. R의 파장이 가장 길고 B의 파장이 가장 짧다.

한편, 화소나 하위 화소가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의 다양성 정도를 색심도라 하는데, 보통 색심도는 비트^{*}의 수로 나타낸다. 색심도가 3비트인 화소는 2^3 인 8개의 색상을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하위 화소의 색상은 밝고 어두움의 정도인 계조가 여러 단계로 나뉘어 표현될 수 있다. 만약 하위 화소마다 2^n 단계의 계조가 있다면 하위 화소는 n비트의 색심도를 가지고, 화소는 $(3 \times n)$ 비트의 색심도를 가진다고 말한다. 이 경우 하나의 화소가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의 수는 2^{3n} 개이다. OLED 디스플레이에서, 하위 화소의 계조는 각 하위 화소에 전류, 즉 전자와 양공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박막 트랜지스터가 전류량을 변화시켜 구현한다. n비트의 색심도를 가진 하위 화소라면, 2^n 개의 기준 전류량이 정해져 있어 각 기준 전류량에 대응하는 밝기의 빛이 방출되는 식이다. 이때 공급된 전류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여기자가 생성되어 더 밝은 색상의 빛이 방출된다.

그런데 우리의 눈은 색상이 어두운 영역에서의 밝기 차이를 더 크게 느낀다. 이는 색심도가 3비트인 하위 화소의 색상에 대해 계조의 단계 간 밝기 차이를 동일하게 설정하면, 1단계와 2단계 간 밝기 차이를 7단계와 8단계 간 밝기 차이보다 더 크게 느낀다는 뜻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감마 보정이다. 이는 색상이 어두운 구역일수록 출력 이미지에서의 계조 단계 간 밝기 차이를 작게 하고 색상이 밝은 구역일수록 출력 이미지에서의 계조 단계 간 밝기 차이를 크게 하여 우리 눈에 실제 밝기와 똑같은 밝기로 보이도록 하는 것이다.

* 증착 : 금속 등을 가열·증발시켜 그 증기를 유리판 등에 얇은 막으로 입히는 공정.

* 비트 : 0과 1로 표시되는 디지털 정보의 기본 단위로, 011인 디지털 정보의 비트 수는 3이다.

[실전 읽기]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컴퓨터 모니터나 텔레비전, 스마트폰 등의 [디스플레이]에서 화면의 이미지를 이루는 최소 단위를 [화소(C)]라고 한다. 동일한 면적의 화면에서 화소가 많을수록 더 선명한 이미지 표현이 가능하며, 이미지의 선명도를 뜻하는 해상도는 보통 '가로 × 세로'의 화소수로 나타낸다. 각 화소는 빛의 삼원색인 빨강(R), 녹색(G), 파랑(B)의 빛을 투과시키거나 발(發)하는 세 개의 [하위 화소(C)]로 구성되는데, R, G, B의 빛이 적절한 밝기로 혼합되어 한 화소의 색상이 다양하게 구현된다. 가령 R과 G의 빛이 혼합되면 노란색이, 세 빛이 모두 혼합되면 하얀색이 구현되며 세 빛이 모두 혼합되지 않으면 검정색이 구현된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① 1문단에서 제시하는 개념이 꽤 많습니다. 급하게 넘어가지 말고 천천히 읽으면서 챙겨야 합니다. 1문단의 개념을 놓치고 넘어갔을 때 뒷부분에서 독해가 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② 컴퓨터 모니터, 텔레비전, 스마트폰에는 '디스플레이'가 있고, 디스플레이에서 화면의 이미지를 이루는 최소 단위를 '화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단위인 '화소'가 모여서 하나의 '화면'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스마트폰의 세대를 사는 우리에게 화소라는 개념이 낯선 개념은 아니지요. 가볍게 읽었으리라 생각합니다.

③ 메모할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지문은 정보량, 개념이 정말 많은 지문인데, 메모할 내용도 많습니다. 부지런히 손이 움직여줘야 하는 지문입니다. 두 개의 문장을 묶어서 정리해봅시다.

$$\text{화소 수} \uparrow \rightarrow \text{선명도} \uparrow = \text{해상도(가로} \times \text{세로)} \uparrow$$

④ 층위 구분을 잘 해줘야 합니다. '화면'은 '화소'로 구성되고, '화소'는 '하위 화소(R,G,B)'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하위 화소'는 두 개의 종류로 나뉩니다. '빛을 투과시키는 하위 화소'와 '빛을 발하는 하위 화소'. 벌써부터 정보량이 차곡차곡 쌓이는 느낌이 듭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최대한 안 헛갈리게 차분히 정리하면서 따라가야 합니다.

디스플레이는 별도의 광원에서 나온 빛이 R, G, B의 색채 필터가 부착된 하위 화소를 투과하여 화소의 색상을 구현하는 방식인 [수광형(C)]과 하위 화소의 소재 자체에서 R, G, B의 빛이 나와 화소의 색상을 구현하는 방식인 [발광형(C)]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오늘날에는 이미지 표현에 필요한 하위 화소에만 전류를 공급해도 되므로 전력 소모가 더 낮고 별도의 광원이 필요치 않으므로 디스플레이 패널을 더 얇게 만들 수 있는 [발광형]이 점점 더 널리 쓰이고 있는 추세이다. 대표적인 [수광형] 디스플레이인 액정 디스플레이(LCD)와 달리 액정이나 색채 필터 같은 빛 색상의 순도를 감소시키는 요소가 없어 색 재현력이 매우 우수하다는 점도 [발광형]이 각광받게 된 이유이다. 대표적인 [발광형] 디스플레이로는 전류를 흘려 주면 빛을 발하는 유기 발광 물질을 활용한 유기 발광 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가 있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① 1문단 마지막에서 하위 화소의 종류를 두 가지로 분류했었습니다. '빛을 투과시키는 하위 화소'와 '빛을 발하는 하위 화소'. 2문단에서는 그 두 가지 하위 화소의 이름을 제시해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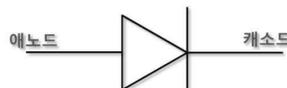
(1) 수광형 : 'R, G, B 색채 필터'가 부착된 하위 화소를 빛이 투과

- (2) 발광형 : 하위 화소 자체에서 'R, G, B의 빛'이 방출
 ②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수광형보다는 발광형 하위 화소가 인기라고 합니다. 다음에 나오는 내용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묶어서 정리해주면 됩니다.
 (1) 수광형 : 'R, G, B 색채 필터'가 부착된 하위 화소를 빛이 투과 ⇨ LCD
 (2) 발광형 : 하위 화소 자체에서 'R, G, B의 빛'이 방출 ⇨ OLED(=유기 발광 물질 활용)
 ↳ [전류 → 빛]

일반적으로 OLED 디스플레이의 한 화소를 수직으로 잘라 낸 단면은 전자(-)를 주입하는 전극인 캐소드(C)와 양공(+)을 주입하는 전극인 애노드(A) 사이에 발광층(L)이 끼어 있는 구조이다. 발광층에는 전류를 흘려 주면 각각 R, G, B의 빛을 내는 유기 발광 물질이 증착*되어 있는데, 이 물질들이 각각 하나의 하위 화소를 이룬다. 유기 발광 물질에 전류를 흘려 주면 빛이 나오는 현상을 전계 발광(CEL)이라고 한다. 이는 캐소드에서 주입된 전자와 애노드에서 주입된 양공이 발광층에서 만나 / 들뜬상태의 전자-양공 쌍인 여기자가 생성되고 / 이것이 금세 바닥상태로 떨어지면서, / 들뜬상태와 바닥상태의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빛의 형태로 발하는 현상이다. 유기 발광 물질에 따라 이 에너지 차이가 다르며, 이 차이가 클수록 파장이 짧은 빛을 방출한다. R의 파장이 가장 길고 B의 파장이 가장 짧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 ① 연결해줍니다. '발광형 하위 화소'를 활용하는 '화소'는 '캐소드', '애노드', '발광층' 세 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캐소드'는 '전자'를 주입하고, '애노드'는 '양공'을 주입합니다. 그리고 '발광층'은 '유기 발광 물질', 즉 '하위 화소'로 이루어집니다. 정리하자면 '캐소드'와 '애노드'는 전류를 흘려 주는 역할을 하고, '유기 발광 물질', 즉 '하위 화소'는 이 전류를 받아서 빛을 방출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유기 발광 물질이 전류를 받아서 빛을 내는 것을 '전계 발광'이라고 합니다.
 ② 여기까지 읽었을 때, 내심 <보기> 문제에 화소 단면이 그려져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봤습니다.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나름대로 연상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분석지를 쓰면서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비슷하더군요. 이렇게 어떤 구성 요소와 함께 원리가 제시될 때, 이미지가 따로 없다면 연상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미지는 항상 글보다 직관적이기 때문이지요.



- ③ 긴 호흡으로 원리(단계)가 제시되었습니다. 최소한 차분하게 읽으면서 끊어갑니다. 물론 가능하다면 번호를 매깁시다.
 (1) 캐소드 전자, 애노드 양공 발광층에서 만남
 (2) 들뜬상태의 여기자 생성
 (3) 여기자 바닥상태로 떨어짐
 (4) 들뜬상태 에너지 - 바닥상태 에너지 → 빛의 형태로 방출
 ④ 유기 발광 물질에 따라서 (4)의 에너지 차이가 다르게 나타난다는군요. 반비례 관계입니다.
 들뜬상태 에너지 - 바닥상태 에너지↑ → 파장↓
 ⑤ 색채별 파장 길이 순서를 찾는데, R과 B를 찾지만 나머지가 G 한 개 남기 때문에, 셋 다 정리가 가능합니다.
 파장 길이 : R > G > B

한편, 화소나 하위 화소가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의 다양성 정도를 색심도(C)라 하는데, 보통 색심도는 비트*의 수로 나타낸다. 색심도가 3비트인 화소는 2³인 8개의 색상을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하위 화소의 색상은 밝고 어두움의 정도인 계조(C)가 여러 단계로 나뉘어 표현될 수 있다. 만약 하위 화소마다 2ⁿ 단계의 계조가 있다면 하위 화소는 n비트의 색심도를 가지고, 화소는 (3×n)비트의 색심도를 가진다고 말한다. 이 경우 하나의 화소가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의 수는 2³ⁿ개이다. OLED 디스플레이에서, 하위 화소의 계조는 각 하위 화소에 전류, 즉 전자와 양공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박막 트랜지스터가 전류량을 변화시켜

구현한다. n 비트의 색심도를 가진 하위 화소라면, 2^n 개의 기준 전류량이 정해져 있어 각 기준 전류량에 대응하는 밝기의 빛이 방출되는 식이다. 이때 공급된 전류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여기자가 생성되어 더 밝은 색상의 빛이 방출된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① 개념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정도 정보량을 머리만으로 다 정리하려고 하면 꼬일 가능성이 높으니깐 과감하게 손을 씁시다. 나중에 다시 찾아서 하나하나 읽는 것보다, 처음 읽을 때 손으로 정리해 놓는 게 시간상으로도 득이 될 수 있습니다. 여차피 n 이라는 변수를 공통적으로 쓰고 있으니, 묵을 수 있는 내용은 최대한 묵어서 정리합니다.

$$\begin{aligned} \text{하위 화소 색심도} &= n \\ \text{기준 전류량} = \text{계조} &= 2^n \\ \text{화소 색심도} &= 3n \\ \text{화소 색상 수} &= 2^{3n} \end{aligned}$$

② 마지막에 제시된 비례 관계까지 같이 메모해줍니다. 관계는 기억이고, 손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text{전류량} \uparrow \rightarrow \text{여기자 생성량} \uparrow \rightarrow \text{색상 밝기} \uparrow$$

③ 하위 화소 색심도가 n 일 때 화소 색심도가 왜 $3n$ 인지, 화소 색심도가 $3n$ 일 때 화소 색상 수는 왜 2^{3n} 인지, 궁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이해하면서 읽기에는 문단의 정보량이 너무 많아요. 위와 같이 정리할 수만 있어도 충분하니깐 욕심부리지 말고, 차분하게 읽어내려 갑시다.

그런데 우리의 눈은 색상이 어두운 영역에서의 밝기 차이를 더 크게 느낀다. 이는 색심도가 3비트인 하위 화소의 색상에 대해 계조의 단계 간 밝기 차이를 동일하게 설정하면, 1단계와 2단계 간 밝기 차이를 7단계와 8단계 간 밝기 차이보다 더 크게 느낀다는 뜻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감마 보정(γ)이다. 이는 색상이 어두운 구역일수록 출력 이미지에서의 계조 단계 간 밝기 차이를 작게 하고 색상이 밝은 구역일수록 출력 이미지에서의 계조 단계 간 밝기 차이를 크게 하여 우리 눈에 실제 밝기와 똑같은 밝기로 보이도록 하는 것이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① 작은 규모의 문제-해결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색상이 어두운 영역에서 밝기 차이를 더 크게 느낀답니다. 중요한 것은 '더 크게 느낀다' 자체가 아니라, 어두운 영역에서 더 크게 느낀다는 것. 즉 어두운 영역과 밝은 영역 사이에 밝기 차이를 느끼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②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네요. 계조의 단계 간 밝기 차이를 동일하게 설정했을 때, 1단계와 2단계 사이의 밝기 차이와 7단계와 8단계 사이의 밝기 차이는 같습니다. 둘 다 1단계씩만 차이가 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눈은 1단계와 2단계 사이의 밝기 차이가 더 크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문제'지요, 자연스럽게 '해결'로 넘어갑니다.

③ 지문에서 제시한 해결책은 '감마 보정'입니다. 이제 감마 보정이 어떻게 해결책이 되는지를 파악해봅시다. 색상이 어두운 영역에서 밝기 차이를 더 크게 느끼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밝기 차이를 크게 느끼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④ 그래서 감마 보정의 방식은 어두운 영역에서 출력 이미지의 계조 단계 간 밝기 차이를 작게 만들고, 밝은 영역에서는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두운 영역에서 실제 밝기 차이가 10일 때, 출력 이미지의 밝기 차이를 5로 만들어 버린다. 그러면 우리의 눈은 어두운 영역이므로 이를 더 크게 인식하여 10으로 인식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눈이 인식하는 밝기 차이와 실제 밝기 차이가 같아지게 되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증착 : 금속 등을 가열·증발시켜 그 증기를 유리판 등에 얇은 막으로 입히는 공정.

* 비트 : 0과 1로 표시되는 디지털 정보의 기본 단위로, 011인 디지털 정보의 비트 수는 3이다.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성취한다.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컴퓨터 모니터나 텔레비전, 스마트폰 등의 디스플레이에서 화면의 이미지를 이루는 최소 단위를 ㉠ 화소라고 한다. 동일한 면적의 화면에서 화소가 많을수록 더 선명한 이미지 표현이 가능하며, 이미지의 선명도를 뜻하는 해상도는 보통 '가로×세로'의 화소수로 나타낸다. 각 화소는 빛의 삼원색인 빨강(R), 녹색(G), 파랑(B)의 빛을 투과시키거나 발(發)하는 세 개의 ㉡ 하위 화소로 구성되는데, R, G, B의 빛이 적절한 밝기로 혼합되어 한 화소의 색상이 다양하게 구현된다. 가령 R과 G의 빛이 혼합되면 노란색이, 세 빛이 모두 혼합되면 하얀색이 구현되며 세 빛이 모두 혼합되지 않으면 검정색이 구현된다.

디스플레이는 별도의 광원에서 나온 빛이 R, G, B의 색채 필터가 부착된 하위 화소를 투과하여 화소의 색상을 구현하는 방식인 수광형과 하위 화소의 소재 자체에서 R, G, B의 빛이 나와 화소의 색상을 구현하는 방식인 발광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오늘날에는 이미지 표현에 필요한 하위 화소에만 전류를 공급해도 되므로 전력 소모가 더 낮고 별도의 광원이 필요치 않으므로 디스플레이 패널을 더 얇게 만들 수 있는 발광형이 점점 더 널리 쓰이고 있는 추세이다. 대표적인 수광형 디스플레이인 액정 디스플레이(LCD)와 달리 액정이나 색채 필터 같은 빛 색상의 순도를 감소시키는 요소가 없어 색 재현력이 매우 우수하다는 점도 발광형이 각광받게 된 이유이다. 대표적인 발광형 디스플레이로는 전류를 흘려 주면 빛을 발하는 유기 발광 물질을 활용한 유기 발광 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OLED 디스플레이의 한 화소를 수직으로 잘라 낸 단면은 전자(-)를 주입하는 전극인 ㉢ 캐소드와 양공(+)을 주입하는 전극인 애노드 사이에 발광층이 끼어 있는 구조이다. 발광층에는 전류를 흘려 주면 각각 R, G, B의 빛을 내는 유기 발광 물질이 증착되어 있는데, 이 물질들이 각각 하나의 하위 화소를 이룬다. 유기 발광 물질에 전류를 흘려 주면 빛이 나오는 현상을 전계 발광이라고 한다. 이는 캐소드에서 주입된 전자와 애노드에서 주입된 양공이 발광층에서 만나 들뜬상태의 전자-양공 쌍인 여기자가 생성되고 이것이 금세 바닥상태로 떨어지면서, 들뜬상태와 바닥상태의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빛의 형태로 발하는 현상이다. 유기 발광 물질에 따라 이 에너지 차이가 다르며, 이 차이가 클수록 파장이 짧은 빛을 방출한다. R의 파장이 가장 길고 B의 파장이 가장 짧다.

한편, 화소나 하위 화소가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의 다양성 정도를 색심도라 하는데, 보통 색심도는 비트*의 수로 나타낸다. 색심도가 3비트인 화소는 2³인 8개의 색상을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하위 화소의 색상은 밝고 어두움의 정도인 계조가 여러 단계로 나뉘어 표현될 수 있다. 만약 하위 화소마다 2ⁿ단계의 계조가 있다면 하위 화소는 n비트의 색심도를 가지고, 화소는 (3×n)비트의 색심도를 가진다고 말한다. 이 경우 하나의 화소가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의 수는 2³ⁿ개이다. OLED 디스플레이에서, 하위 화소의 계조는 각 하위 화소에 전류, 즉 전자와 양공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박막 트랜지스터가 전류량을 변화시켜 구현한다. n비트의 색심도를 가진 하위 화소라면,

39-㉠

수광형 vs 발광형

39-㉡

39-㉢

40-㉠

41-㉠

41-㉡

41-㉢, 40-㉠

2ⁿ개의 기준 전류량이 정해져 있어 각 기준 전류량에 대응하는 밝기의 빛이 방출되는 식이다. 이때 공급된 전류량이 많을수록 더 밝은 여기자가 생성되어 더 밝은 색상의 빛이 방출된다. → 40-㉠

그런데 우리의 눈은 색상이 어두운 영역에서의 밝기 차이를 더 크게 느낀다. 이는 색심도가 3비트인 하위 화소의 색상에 대해 계조의 단계 간 밝기 차이를 동일하게 설정하면, 1단계와 2단계 간 밝기 차이를 7단계와 8단계 간 밝기 차이보다 더 크게 느낀다는 뜻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감마 보정이다. 이는 색상이 어두운 구역일수록 출력 이미지에서의 계조 단계 간 밝기 차이를 작게 하고 색상이 밝은 구역일수록 출력 이미지에서의 계조 단계 간 밝기 차이를 크게 하여 우리 눈에 실제 밝기와 똑같은 밝기로 보이도록 하는 것이다.

- * 증착: 금속 등을 가열·증발시켜 그 증기를 유리판 등에 얇은 막으로 입히는 공정.
- * 비트: 0과 1로 표시되는 디지털 정보의 기본 단위로, 011인 디지털 정보의 비트 수는 3이다.

39.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색채 필터는 빛의 색상을 더 높은 순도로 정제해 주는 역할을 한다. X → 색채 필터 같은 빛 색상의 순도를 감소시키는 요소가 없어
 - ㉡ LCD에 비해 OLED 디스플레이는 더 얇게 만들 수 있고 전력 소모가 더 낮다. O LCD → 수광형, OLED → 발광형
 - ㉢ OLED 디스플레이는 이미지 표현에 필요하지 않은 화소에는 전류를 공급하지 않아도 된다. O → 지문 확인
 - ㉣ 동일한 면적의 모니터는 해상도가 '600×800'일 때보다 해상도가 '800×1,000'일 때 더 선명한 이미지를 보여 준다. O 화소수 ↑ → 더 선명.
 - ㉤ 높은 단계의 계조일수록 단계 간 밝기 차이에 상응하는 전류량 차이를 더 크게 해야 감마 보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O
→ 높은 단계의 계조일수록 = 더 밝은 구역일수록.
감마 보정을 할 때에 색상이 더 밝은 구역일수록 단계 간 전류량 차이를 더 크게 한다.
40.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아래 표는 하위 화소의 색심도가 3비트인 OLED 디스플레이의 화소 I과 II에 대한 정보이다. 계조의 단계 간 전류량의 차이는 모두 10으로, 가장 낮은 단계의 전류량은 0으로 설정되었다.

	화소 I			화소 II		
하위 화소	R	G	B	R	G	B
전류량	0	0	50	60	70	0

(단, 감마 보정은 하지 않은 상태로, 표에 기입된 R, G, B는 각각 해당 색상의 빛을 발하는 하위 화소를 가리킨다.)

- ㉠ 화소 I과 II가 각각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의 수는 2ⁿ개이겠군. O (2^{3×3} 이므로 2⁹개가 높다. (화소가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의 수는 2³ⁿ개 (하위 화소당 n비트))
- ㉡ 화소 I은 파란색 계열, 화소 II는 노란색 계열의 빛을 내겠군. O → B=파랑, R&G=노랑
- ㉢ 화소 II의 하위 화소 B에도 적정량의 전류를 공급하면 하얀색 계열의 빛을 내겠군. O
→ 세 빛이 모두 혼합 = 하얀색

④ 화소 I의 B에 공급되는 전류량을 30으로 줄이면 파장은 그 대로인 채 색상만 더 어두워진 빛이 방출되었군. O → **기분 확인**

⑤ 화소 I의 하위 화소 B에서 생성된 여기자는 화소 II의 하위 화소 G에서 생성된 여기자보다 낮은 에너지를 가지겠군. X

↳ B의 파장이 가장 짧음 =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의 에너지 차이가 가장 큼 = 에너지량 가장 큼

41. OLED 디스플레이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

㉠: 화소, ㉡: 하위 화소, ㉢: 캐소드, ㉣: 발광층, ㉤: 막막 트랜지스터

① ㉠에서 표현 가능한 색상의 수는 ㉡에서 표현 가능한 색상의 수의 3배이다. X 색상의 수는 2^(비트수)이므로 3배가 아니다.

② ㉡에서 발하는 빛이 삼원색의 어느 색에 해당하는지는 ㉣에서 주입되는 전자의 개수에 따라 결정된다. X 유기발광물질과 관련이 있다.

③ ㉣에서 주입된 전자가 양공과 만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에 유기 발광 물질이 증착되어 있어야 한다. O

④ ㉣에서 전계 발광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유기 발광 물질로 만든 애노드에 양공을 주입해야 한다. X 그런 내용 X.

⑤ ㉤은 각각의 ㉠에 전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소자로, 전류량을 변화시켜 서로 다른 종류의 색상의 빛이 방출되도록 한다. X 화소가 아니라 하위화소에 전류를 공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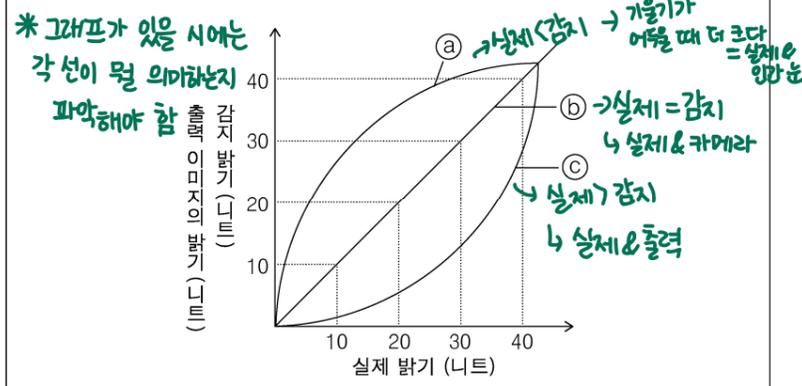
③: 유기발광물질에 전류를 흘려주어 '전계발광' 현상이 일어나며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42. 윗글을 참고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5

<보기>

감마 보정이 필요한 것은 우리 눈이 색상이 어두울 때도 실제의 밝기 차이를 그대로 감지하는 카메라와 다르기 때문이다. 아래는 실제 밝기와 감지 밝기 혹은 실제 밝기와 출력 이미지의 밝기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단, 감마 보정 이후에는 우리 눈이 출력 이미지를 보고 실제 밝기와 똑같은 밝기를 감지한다고 가정한다. 니트는 밝기의 단위이다.)



① a는 실제 밝기와 카메라의 감지 밝기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겠군. X 기울기가 어두울 때 더 크므로 실제&인간 눈의 관계일 것이다.

② b는 감마 보정 이후의 실제 밝기와 출력 이미지의 밝기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겠군. X 실제와 같으므로 카메라&실제의 관계일 것이다.

③ c는 감마 보정 이후의 실제 밝기와 인간 눈의 감지 밝기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겠군. X 밝아질수록 기울기 ↑ → 보정 이후 & 실제의 관계일 것이다.

④ a와 b를 보니, 실제 밝기가 40니트인 대상은 실제 밝기가 10니트인 대상과 달리 인간의 눈에 더 어둡게 보이겠군. X 밝게 보인다.

⑤ b와 c를 보니, 감마 보정 이후의 출력 이미지에서 10니트의 밝기로 표현된 것은 인간의 눈에는 10니트보다 밝게 보이겠군. O

↳ c에서 출력 이미지의 밝기가 10니트인 점의 경우, 실제 밝기는 대략 30니트이고, 출력 이미지는 인간의 눈에는 실제와 같게 보이기 때문에 30니트도 보일 것이다. (10니트X)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선계에 살던 해룡과 금령은 각각 장 부인과 막 씨의 몸을 빌려 환생한다. 해룡은 어린 시절 부모와 헤어져 고난을 겪다가, 방울로 태어난 금령의 도움으로 금선 공주와 혼인한다.

이날 밤에 장 부인과 막 씨가 각각 꿈을 꾸니 하늘에서 선관 한 사람이 내려와 장 부인에게 이르되,

“그대의 액운이 다하였으니 오래지 아니하여 아들이 이 길로 갈 것이니 때를 잃지 말라.”

하고 또 막 씨에게,

“그대는 딸의 얼굴을 보면 자연 알 수 있으리라.”

하고, 또 금령에게 말하기를,

“너는 인연이 다하였으매 인간 세상의 부귀가 지극할 것이니라.”

하고 손으로 금령을 어루만지니 문득 방울이 터지며 선녀 하나가 나왔다. 선관이 이르되,

“우리가 주었던 보배를 도로 달라.”

하니, 선녀가 다섯 가지를 드리니 선관이 받아 각각 소매에 넣고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깨달으니 침상일몽이었다. 막 씨가 급히 깨어나 방울을 찾은즉 간데없거늘, 자세히 살펴보매 난데없는 미인이 곁에 앉아 있었다. 일어나 보니 과연 꿈에 보이던 선녀이니, 백태천광(百態千光)이 사람의 정신을 앗으니 가히 천향국색(天香國色)이었다. 막 씨가 한 번 보매 ㉠정신이 황홀하여 어찌할 줄 몰라 어린 듯이 바라볼 따름이었다.

장 공이 이 말을 듣고 바빠 들어와 본즉 듣던바 처음이요, 보던바 처음이었다. 희희낙락하여 이름을 금령 소저라 하고 자(字)를 선이라 하였다. 전후 사정을 물으니 기억하지 못하였다. 하늘께 사례하고 그 즐거움이 비할 데 없었다.

(중략)

해룡이 문득 보니 벽상에 걸린 족자가 자기 주머니에 있는 족자와 같았다. 자세히 보고 크게 의아하여 묻기를,

“족자의 그림이 무슨 형상이옵니까?”

장 공이 슬피하며 말하기를,

“노부가 늦게야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전란 중에 잃은 지 18년입니다. ㉡사생존망(死生存亡)을 몰라 밤낮으로 뼈에 사무치는데, 마침 이인(異人)이 그 정리를 알고 그림을 그려 주기로 걸어 두고 보나이다.”

해룡이 즉시 비단 주머니를 열어 족자를 꺼내 걸거늘, 장 공이 보니 두 족자가 한 사람의 붓에서 나온 듯이 조금도 차이가 없었다.

서로 이상하게 여겨 의아하나 뚜렷한 표적이 없어 발설하지 못하였다. 장 공이 해룡에게 묻기를,

“그대의 족자는 어디서 났나이까? 괴이한 일이 있으니 숨기지 말고 자세히 이르소서.”

하였다.

해룡이 자기의 자초지종을 다 말한 후 금령의 조화로 입신 양명하여 귀하게 된 일과 나중에 금령이 떠날 때에 이 족자를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성취한다.”

저 자 이승모, 최상훈
펴 낸 곳 한국교육평가인증
전 화 02-3401-8900
홈페이지 www.kydi.co.kr